

# 후광무



## 1. 원성 여중 교실 - 이른 아침

암전된 화면. 차분한 명상 음악과 함께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 정녀(貞女) 교무 목소리

눈을 살며시 뜬 상태에서 코끝을 바라다봅니다.  
입은 다물고 혀끝을 입천장에 살며시 대고 위, 아래 치아를 가볍게 붙입니다.  
맑은 물이 입 안 가득 고이면, 가끔 모아서 삼켜냅니다.

화면, 서서히 밝아진다.

원불교 재단 사립학교 원성여중 <명상의 시간>이다.

각 교실의 학생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두 눈을 감은 채 스피커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명상 지도를 따르고 있다.

## 2. 원성 여중 교무실 - 이른 아침

차분하게 명상 중인 교사들. 구석 자리, 방송 장비 앞에 선 정녀(貞女) 교무가 보인다. 쪽진 머리에 무채색 한복을 입은 정녀(貞女)교무, 마이크를 통해 <명상의 시간>을 지도하는 중이고, 방송 반 학생들은 방송 장비를 다루고 있다.

### 정녀(貞女) 교무

편안해진 호흡으로 내 마음을 바라다봅니다.  
원래 어리석음이 없는 고요하고 편안한 내 마음을 바라다봅니다.  
원래 그릇이 바르고 참된 내 마음을 바라다봅니다.

평안한 기운이 교내 전체를 감싸보려 애쓰지만,

학교 건물 밖, 8차선 도로와 근방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부터의 들려오는 무적의 소음이 만만치 않다.

### 미숙의 목소리

(매우 공격적)

너 왜 그랬어?

## 3. 원성여중 · 고 소각장 - 오후

청소 시간. 건물 뒤 편, 학교 소각장. 서 종철(39.남), 멀뚱히 서 있다. 그의 옆, 깊이 파인 구덩이가 보인다. 구덩이 안에서부터 또박또박 들려오는 미숙의 목소리.

### 미숙의 목소리

....하고 물어왔을 때 “몰라, 그냥 한 건데?”라고 대답할 때는요  
그 사람이 정말 생각 없이 그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생각 없이 대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덩이 안, 양 미숙 (29.여), 열심히 삼질하며 말을 이어간다.

## 미숙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쓸데없이 삼질을 하는 이유는요,  
학교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이구요.

미숙의 구덩이, 김장독 서너 개는 너끈히 들어갈 만큼 깊어져버렸다. 시뻘건 얼굴로 죽어라 삼질하며,

## 미숙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선생님께서 여기 와 계신 이유는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쓴 관계’라는 사실을 선생님도 인정하시기 때문 이예요!

(서 선생, 당황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질문에 “그냥”이라고 대답 하신 걸 봐서는,  
선생님 마음이 정말 복잡하고 힘드시다는 증거죠.

(미숙, 삼질을 멈추고 가슴에 손을 얹는다)

...제 마음도 같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오전 9시12분에, 제가 음성 메세지 남겼잖아요.

바로 2분 후인 오전 9시 14분에, 제 음성을 확인하셨더라고요?

## 서 선생

?!

미숙, 씨익- 미소 지으며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보인다.

## 미숙

수신자가 제 음성 메세지 들으면,  
바로 확인 문자 오거든요.

언뜻, 미숙의 핸드폰 액정에 적힌 타이틀 문구 보인다.

##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미숙, 저 혼자 부끄러워하며 다시 삼질을 시작한다. 취조하듯.

## 미숙

그러니까, 선생님은 금일 오전 9시12분에  
제 전화를 그냥 못 받은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받았거나,  
적어도 오전 9시 14분 이후에는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 맞죠?

이때, 진동하는 서 선생의 핸드폰. 서 선생, 얼른 전화 받으며 구덩이에서 멀어진다.

미숙, 서 선생의 대답이 없자 표정 밝아진다. 저 혼자 신나서 연신 삼을 내리 꽂으며,

**미숙**

거어~봐! 거봐!

지금, 선생님은,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드신 거예요, 저 때문에!

(수줍은 미소)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미숙, 이번엔 실컷 파 놓은 구덩이를 도로 메우기 시작한다. 땀에 젖어 심하게 꼬불거리는 미숙의 성난 곱슬머리.

### 서 종철 핸드폰 음성 사서함

x월 xx일 오전 9시 12분, 양. 미. 숙. 님이 남기신 메시지입니다. 께-

방금 일부러 저 피하신 거 맞죠?

...그냥, 아플 때는 아파하고 그리울 때는 그리워하면서 살아요, 우리!

**홍당무**

## 4. 진료실 - 오후

미숙, 수심 가득하다.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대는 모습, 매우 불안정하다.

**미숙**

왜 자꾸 내 전화를 씹을까... 생각 해봤는데요, 선생님.

30대 후반의 남자 의사, 심각한 얼굴로 그런 미숙을 관찰하는 중.

**미숙**

(입술을 깨물며 아련하게)

그 분이... 절 너무 많이 사랑하게 돼버려서 힘든가 봐요.

...왜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힘들면, 괜히 막 사창가 같은데 가구 그러잖아요...

미숙, 가방에서 주섬주섬 책을 꺼내 보인다. <지구에서 가장 특이한 종족 - 남자> <그 남자에게 전화하지 마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등등.... 하도 많이 읽어 모든 책장이 너덜너덜하다.

**미숙**

남자는 가끔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럴 때, 여자는 그냥 묵묵히 기다려줘야 한대요.

(순식간에 눈물 그렁. 한 멧힌 토로를 시작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게요,

저는 일부러. 전화 안하는 건데,

그 분은 제가 그냥.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떡해요?

(어린 아이마냥 울먹이느라 숨도 고르지 못하며)

그렇다고, 제가 자꾸 전화해서, 일부러 전화 안하는 거라고 말하면,

그건 묵묵히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는데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 제가 전화도 안 하면서,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선생님.

## 5. 벨리 댄스 학원 접수 실 - 저녁 : 과거

미숙, 가입신청서를 건넨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연습실. 벨리 댄스 수업 중이다.  
강습 중인 학원 장 성은교 (45.여) 새치로 하얀 머리, 볼륨 있는 몸매, 우아하다.

### 미숙 목소리

그 이 와이프는요, 딱 보니까 폐경기 지난 게!  
... 일단 나랑 게임이 안돼요

## 6. 원성여중·고 교문 - 오전 : 과거

하나의 교문을 사용하는 원성여중·고. 교문에서부터 흥해 갈라지듯 양 쪽으로 나뉘지는 중. 고등학생들.  
핸드폰을 손에 꼭 쥐 채, 중학생 복장 검사 중인 미숙, 관심은 온통 맞은편에 쏠려 있다.

맞은편, 중학생 서 종희 (15.여), 고등학교 선생인 이 유리 (26.여) 앞에 우뚝 서 미동도 없다.

### 유리

중학생은 저쪽이야, 애!  
(종희 가슴께를 꼭. 찌르며)  
근데, 너 명찰도 없고, 뱃지도 없네? 별점 받겠다, 너!

유리 선생을 노려보는 종희의 눈빛, 살의가 돈다.

### 미숙 목소리

개는 지 아빠 반만이라도 닮지, 좀 싸가지 없긴 한데,

### 미숙

(맞은편에서 버럭)  
그 학생은 우리 끼예요! 유리 선생이 왜 참견이에요?

유리, 어처구니없다. 시뻘건 얼굴의 미숙, 유리를 노려본다.

### 미숙 목소리

그래두, 내 남친 딸이라서 잘 해주고 싶은 맘, 이해하시죠?

## 7. 원성여중 교무실 - 밤 : 대 과거

어두컴컴한 빈 교무실. 미숙, 종희의 학생기록부를 훑쳐보고 있다.

이름: 서 종희 - 1992년 8월 15일 생  
부: 서 종철 직업: 원성여고 국어교사  
모: 성 은교 직업: 벨리댄스 학원 운영  
행실평가: 매사 공격적임

증명사진 속 종희, 두 눈에 적의(敵意)가 가득하다.

## 8. 원성여중 · 고 교문 - 오전 : 과거

두 주먹 불끈 쥔 종희, 한 대 칠 기세로 유리에게 다가선다.

### 종희

그러는 너.는, 복장이 이게 뭐냐?

유리, 사색이 된다. 건너편에 선 미숙, 잔뜩 겁먹은 유리를 바라보며 고소해한다.

### 미숙 목소리

유리 선생은 좀 당해도 싸요!

원래 우리 둘 다 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 가르쳤었거든요.

## 9. 원성여고 교실 - 오후 : 과거

미숙, 칠판에 러시아어 문장을 쓰고 있다.

*У нас в Корей не популяр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 자막: 한국에서는 러시아어가 인기 없습니다

학생들, 일제히 러시아어 문장을 읽기 시작한다.

### 학생들

빅 볼세 브시보 뽀뿌랄니 브 나쎄이 슈플레!

(자막: 우리 학교에서는 당신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교단, 어느새 분필을 손에 든 유리가 섰다. 칠판에 적힌 문장.

*Вы вольше всего популярны в нашей школе* - 자막: 우리 학교에서는 당신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마치, 저를 향한 찬사라도 받은 듯 뿌듯한 미소 짓는 유리. 학생들, 영 재미없는 얼굴이다.

### 교무 목소리

이제, 제2외국어로 러시아어는 인기가 없어요

교단, 어느새 다시 미숙으로 바뀌었다. 미숙, 속상한 얼굴로 가슴을 치며,

### 미숙

왜 러시아어가 인기 없겠어? 왜?!

가난한 나라는 무시해도 된다는 천민자본주의 속성인 거야, 이게!  
내가 누차 얘기했지? 러시아는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고!!

### 교무 목소리

그리고, 양 선생님은 러시아어에 대한 교육열이 너무 지나칩니다

미숙을 바라보는 학생들, 짜증 가득한 얼굴이다. 그 중 한 학생이 노트에 적은 문장.

*У нас в школе не популярная Ты - 자막: 우리 학교에서는 당신이 인기가 없습니다*

## 10. 원성여고 회의실 - 저녁 : 과거

교감을 비롯한 교사들, 회의 중이다. 심각한 분위기.

### 교무

그래서, 양 미숙 선생님과 이 유리 선생님 중 한 분은 중학교로 내려 가셔야 될 상황인데...

교사들, 양 미숙이 직접 만든 러시아어 쪽지 시험지를 돌려 보고 있다. 낱말퍼즐, 스무고개 등 다양한 형식을 도입한 창의적인 문제, 결들인 삽화마저도 본인이 직접 그려 넣은 듯. 지극 정성이다. 그 중, 한 문제가 보인다.

15. 다음 선호도표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1. русский язык \*\*\*\*\*
2. математика \*\*
3.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
4. китайский язык \*\*

1. 러시아어    2. 수학    3. 영어    4. 중국어

교사들, 몹시 불쾌한 얼굴로 일제히 고개를 가로젓는다.

### 교무

어느 분이 내려가시는 게 좋을까요?

## 11. 원성여중 교실 - 오전 : 과거

칠판에 적힌 이름 석 자. "YANG ME SOOK"

### 미숙

(개미 목소리. 발음 안 좋다)

나이스 두 밀 쥬

작은 체구의 여중생들, 고개 가우뚱.

교단에 선 시벨건 미숙, 잔뜩 겁먹은 얼굴로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꼭 쥐어본다.

### 미숙 목소리

(분노한다)

내가 유리 선생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 12. 원성여중 · 고 교문 - 오전 : 과거

센 8 연결. 살의 뿜 눈초리로 유리를 찌려보는 미숙, 교문을 중심으로 유리와 자기 사이에 삼팔선을 긋기 시작한다. 종희, 유리선생을 잡아먹을 기세로 노려보고 있다. 겁먹은 유리, 종희를 호통한다.

### 유리

야, 너 몇 학년 몇 반 누구야?!

중학생이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어?

### 미숙

(종희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사납게 쓰아붙인다)

유리 선생님이야말로 고등학교 주제에 중학생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유리, 억울하다. 미숙, 종희를 끌고 가며 진심을 다해 훈육(?)하기 시작한다.

### 미숙

착하게 살지 마라. 그럼, 사람들이 너한테 못되게 군다!

근데, 니가 못되게 굴잖아? 그럼, 너한테 착하게 굴어!

(한 땀힌)

그리고 너,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 마! 열심히 해봤자, 너만 손해야!

종희,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당황한 미숙, 종희를 어르며,

### 미숙

어머, 야! 괜찮아, 괜찮아... 지금이라도 요령껏 살면 돼!



**중희**

(유리를 깨려보며 혼잣말)

나쁜...년...

### 13. 진료실 - 오후

시뻘건 얼굴의 미숙, 핸드폰을 꼭 쥐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드디어, 침묵을 깨고,

**미숙**

근데요, 선생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게,  
서 중희 개는... 그 때 굳이 유리 선생한테, 왜 그랬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개 가우뚱)

... 말하다 보니까 더 이상해지네?

**의사**

...그런 애길 왜 제게...

**미숙**

(의사를 짚어본다)

그럼, 제가 누구한테 말해요?

의사의 가운 가슴팍에 달린 명찰, “피부과 전문의 박 찬욱”. (39.남),

**의사**

(지친 한 숨을 내쉬며)

어쨌든, 다른 ‘신체적’증상은 없으신 거죠?

미숙, 시뻘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절절하게 토로한다.

**미숙**

제가요, 중학교로 내려온 뒤부터는 이게 더 심해지니까...  
일단은, 다각적인 측면으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의사**

양 미숙씨는 “안면 홍조증” 인 것 같네요.

(시뻘건 얼굴의 미숙, 비쩍 긴장한다)

얼굴이 수시로 빨개지시는 건,

모세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확장 돼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소금물에 족욕 자주 하시면 좋구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어찌구 저찌구...

## 미숙

(겉먹은 얼굴로 버럭 화낸다)  
겪어보지도 않고, 아는 척 하지 마!

이 환자, 못 말리겠다... 의사, 고개 떨군다. 참 착하게 생겼다.

## 14. 고깃집 - 저녁

원성여중 교사들의 회식 자리.

저 구석, 열심히 고기만 먹고 있는 미숙이 보인다. 옆자리 선생1, 미숙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 선생1

갑자기 중학교 영어 가르치려니까... 힘드시죠, 양 선생님?

미숙, 순간 겉먹는다. 다른 교사들 눈치 보며,

## 미숙

전 그냥 대충대충 가르치는 쪽이니까 걱정 마세요, 선생님!

여 선생, 표정 굳는다.

잠시 후,

여 선생, 미숙에게 등 돌린 채 다른 교사들과 웃고 떠든다. 저 구석, 덩그마니 혼자 앉은 미숙, 핸드폰 통화 중이다.

## 미숙

우리. 고3 수학여행가서 단체사진 찍을 때,  
그때, 제가 어디 서있었게~요?  
(요상하다)

## 15. 서 선생의 집 - 저녁

## 서 선생

10년 전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니, 미숙아.

베란다. 서 선생, 무척 곤란한 표정으로 핸드폰 통화 중이다.

베란다 창문이 닫혀 있어, 거실에서는 서 선생의 통화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

거실.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그의 아내 은교가 보인다.

무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은교, 눈썹을 살살 굽더니 탁자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낸다.

열린 방문 틈으로 그의 딸, 종희가 보인다. 종희, 열린 방문 사이로 귀만 댄 채 쪼그려 앉아 거실을 엿탐하고 있다.

## 서 선생

(미숙과 통화 중 한숨 푹)

근데... 무슨 큰일이 터졌다고 나한테 문자 보냈잖니?

핸드폰 너머로 우당탕탕! 소리가 들린다. 서 선생, 깜짝 놀라,

## 서 선생

여... 여보세요?

## 16. 고깃집 - 저녁

미숙, 테이블을 향해 핸드폰 갖다 대더니, 수저통을 일부러 밀어뜨린다. 우당탕탕! 교사들, 아무도 관심 없다.

## 미숙

(어색하게 혀를 꼬아가며)

저, 실은... 제가 택시비가 없는데요, 선생님...

제가 택시 타고 가서, 선생님한테 택시비 빌려서 다시 집에 갈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차 가지고 오시면, 저랑 같이 그 차 타고 우리 집 가서

제가 선생님한테 택시비를 드리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외주세요!

여기가요... 그 때 거기... 기억하세요요?

(잠시 듣다가, 혼자 팩. 토라진다)

재재제작년 연말에 회식했던 고기 집!

## 17. 고깃집 앞 - 밤

미숙, 한 손에 핸드폰을 꼭 쥐 채 취한 사람 마냥 주저앉아있다.

어라? 저 멀리 유리가 보인다. 미숙, 지레 뭐 들킨 양, 등 돌리고 앉아 미동도 않는다.

## 유리

양 선생님!

## 미숙

(유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책 썰러보며)

왜요!

## 유리

(깜짝 놀라 우뚝 선다)

저기... 서 선생님은 집안에 일이 좀 생기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힘껏 돌아간 미숙의 눈동자, 스프르- 힘 풀린다. 의심 가득한,

**미숙**

...둘이, 전..화.. 통화하는 사이에요?

유리, 사연 가득한 표정 짓더니,

**유리**

실은...저... 요즘 힘들어요.  
(긴 한숨 푹)

**미숙**

?!!!

유리, 미숙에게 찡찡 인기웃 팔짱 낀다. 미숙, 불길함이 엄습한다.

**유리 목소리**

(외로움이 잔뜩 묻어나는)

저기... 양 선생님하고 둘만 있을 때는,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 18. 미숙의 방 - 밤

허름한 반 지하 원룸.

컴퓨터 모니터 앞, 미숙과 유리, 나란히 턱을 괴고 앉아 서 선생의 인터넷 음악방송을 듣고 있다.

애수에 잠긴 유리. 미숙, 애써 태연한 척 유리 눈치만 보고 있다.

**유리**

서 선생님 월드 뮤직 방송, 은근히 인기 많아요. 몰랐죠, 언니?

음악 방송. 서 선생, 노련한 진행 솜씨를 선보이며 다음 곡을 소개한다.

**유리**

어머!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인데...

서 선생의 음악설명과 유리의 이야기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동시에 터져 나온다.

**유리, 서 선생 목소리**

중반부에 나오는 어린 집시들의 합창 부분이 인상 깊은데,  
특히, 피아노 연주라서 더 신선하죠?

완벽한 혼성 화음이 구현된다! 유리, 어머니 입을 막으며 스피커 볼륨, 확 줄여버린다. 살벌한 고요, 흐른다. 시뻘건 미숙, 망부석마냥 미동도 없다. 유리, 표정 어두워지며, 한숨 푹.

**유리**

우리는... 자꾸 이래요.

**미숙**

(쏘아붙인다)

우~리?

유리, 고개 푹 숙인다. 미숙, 애써 침착한 척, 유리의 두 팔을 덥석 붙잡는다.

**미숙**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유리 선생!

사람이 원래 누구 좋아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내 옷 깃만 스쳐도,

(유리의 '완전 착한' 말투를 흉내 내며)

“어머, 저쪽으로 가도 돼는 데, 구태여 일루 지나가네? 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엄청난 비밀을 말해주듯)

근데, 사실 남자는 '그냥'이야! 뭐든 '그냥! 아무 이유 없어!

꼭 멍청한 여자들이 그런 거 헛갈려 가지고 죽네 마네 한다니까?

**유리**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미숙, 유리의 두 손을 꼭 잡더니, 간절하게 설득하기 시작한다.

**미숙**

내가 그 인간을 잘 알잖아..

그 인간, 상대방 배려하는 방식이 얼마나,

**유리**

(표정 어두워지며 중얼댄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진짜!

**미숙**

(유리의 등을 철썩 때리며)

그래, 바로 그 얘기야, 내 말이!

**유리**

(눈물 그렁)

자기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해 버리면, 난 어떡하랴구!..

(미숙, 영? 유리, 외락 었드리며 울먹인다)

서 선생님이 와이프랑 이혼한대요, 저 때문에!

유리, 울음 터뜨린다. 미숙, 눈앞이 캄캄해진다. 눈물이 핑!  
이 때, 시끄럽게 울리는 유리 핸드폰, 발신자 확인하더니 받지 않는 유리. 눈물만 질질 흘린다.

**유리**

혹시...나 때문에 그 이한테 실망했어요?

**미숙**

(움짤. 소리 버럭)

내가 왜?

**유리**

친한 사람한테 실망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미숙의 반응을 살핀다)

**미숙**

(소리 비락비락)

우리 하나도 안 친해!

**유리**

휴, 난 또 친한 줄 알았네..

데려다 달라는 등, 데려다 주라는 등, 서로 그러니까...

미숙, 유리를 죽도록 때고 싶다. 이때, 또 다시, 유리 핸드폰 울린다. 미숙, 신경질 바락

**미숙**

아, 사귀다면서 전화는 왜 안 받아요, 시끄럽게!

**유리**

저기... 이건... 장 선생님이에요.

**미숙**

장? ...체육 장?

**유리**

(무척 곤란한 표정)

가끔 이렇게 밤늦게 전화 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언니!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갑자기, 유리의 핸드폰, 또 울린다. 유리, 움짤.

**미숙**

(애꿎은 유리 핸드폰만 노려보며)

집요한 새끼...

**유리**

(발신자 확인하더니, 지레 변명)  
... 저기... 이걸 변 선생님...

**미숙**

...변?

갑자기 눈앞이 빠질 듯 부릅뜨며, 벼락같은 고향

**미숙**

우리 중학교 음악 변?  
(유리를 위 아래로 찌려보며)  
웬일이니...!

**유리**

정말 이상한 게요, 전화가 올 때면 꼭 한꺼번에 몰려와요.  
(고통스러워한다)  
제가 뭘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언니.

**미숙**

(눈물 그렁. 몸서리친다)  
...니가 캔디냐? 다 너만 좋아하께?

미숙의 화장대 위, 10년 전 제주도 수학여행 단체사진이 보인다.  
당시, 담임이었던 젊은 서 선생. 서 선생 어깨 너머, 19살 미숙의 얼굴이 툭 튀어 올라와 나란히 자리 잡았다.  
사진 찍히는 순간 고의로 집프한 듯. 보기 흉하다.

**유리**

(미숙에게 외친다)  
다 털어놓으니까 좀 살 것 같다... 고마워요, 언니!

## 19. 미용실 - 이른 아침

미용실 막내 여직원, 츄리닝 바람에 눈을 부비며, 셔터 올리다 말고 화들짝 놀란다.  
미숙, 한 손에 핸드폰을 꼭 쥐 채, 결의에 찬 표정으로 미용실 앞에 서 있다. 성난 곱슬머리, 사방으로 뻗어있다.

**미숙**

(옥박지른다)  
파마!

## 20. 원성 여중 복도 - 오후

텅 빈 복도. 수업 중인 각 교실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소음만이 복도를 메운다.

종희, 길 잃은 아이 마냥 복도 한 복판에 덩그러니 서 있다.

**종희**

됐어, 다 관둬!

성큼성큼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종희. 그런 종희의 뒤를 스윽 밟는 긴 생머리의 여자가 있다. 바로 양 미숙. 성난 곱슬에서 긴 생머리로 바뀌었다. 유리와 똑같은 헤어스타일!

## 21. 원성 여중 '매화 반' 교실 - 오후

다들 이동수업을 갔는지 텅 빈 교실. 종희, 혼자 다른 과목을 공부 하고 있다. 종희의 옆, 미숙이 앉아 있다.

**미숙**

니네 이동 수업, 어디로 바뀌었는지 내가 알아다 줄 수 있는데.

**종희**

관심 없어요

**미숙**

(종희 눈치를 보며)

...저기... 이런 얘길... 너한테 어떻게 해야 할 지...  
니네 아파랑 유리 선생이 사귄다는... 얘기가 있던데...

**종희**

(책상에 철퍽. 엎드린다)

...누가 그래요?

**미숙**

(고자질 하는 학생 마냥)

유리 선생이 비밀이라면서 얘기하더라?  
그 년, 평소 진정성이 부족한 걸 봐서 나는 생각했지. 또 뺨치는 구나...

**종희**

우리 엄마, 아파 이혼할 지도 몰라요, 그 여자 때문에!

역시, 사실이구나! 미숙, 역장이 무너진다. 종희, 뭔가 더 말하려다가 주저한다.  
안달이 난 미숙, 두 눈을 번뜩이며 종희를 뚫어져라 바라본다.

**미숙**

(자신의 입을 철썩. 때리며)

말 해, 뭐든지!



**종희**

(간절한)

...실은, 우리 엄마가 이달 말에 터키로 벨리 연수 가는데요,  
그 전에 이혼도장 찍는대요.

**미숙**

(사색이 된다)

얼마 안 남았잖아...!

**종희**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보려구요!

**미숙**

(미친 듯이 머리를 굴린다)

일단 니네 엄마 '출국금지'부터 시키고, 시간을 벌어!

**종희**

그래서, 제가 '1+1=무한대야'를 꼭 해야 돼요, 선생님!

**미숙**

먼 대야?

## 22. 원성여중·고 교정 - 낮 : 과거

공지 게시판. <원성여중·고 제 100회 하나 되는 우주잔치>

다양한 행사 중 "1+1=무한대야" 라는 타이틀의 '장기 자랑 대회' 참가 신청 안내문이 보인다.

"2인 1조, 노래, 춤, 촌극, 형식에 제한 없음"

수업 시작종이 울린다. 게시판 앞에 선 종희, 울음을 애써 참느라 두 눈 부릅뜬 채 통화 중이다.

**종희**

(밝은 목소리로)

제가요 우리 학교 축제 때 공연하게 됐어요, 엄마!  
그러니까, 꼭 보러 오세요, 꼭! 꼭! 꼭이요!

## 23. 원성 여중 '매화 반' 교실 - 저녁

미숙, 표정 밝아진다. 종희의 등짝을 후려치며,

**미숙**

잘했다, 야! 일단, 그렇게 시간을 벌어!

적어도, 그년 때문에 이혼하는 건 막아야지!

**종희**

고맙습니다, 선생님.

**미숙**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말해, 선생님이 다 도와줄게!

**종희**

정말...요?

**미숙**

당연하지!

**종희**

그럼... “무한대야” 같이 할 친구, 구해주세요!  
꼭 두 명씩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미숙**

(음찝. 겁먹는다)

야...그런 건... 니가 구해...

**종희**

애들이 저랑 같이 안 할려구 해요  
저한테 열등감 느끼나 봐요.

**미숙**

...너... 왕파지?

종희, 음찝.

## 24. 원성 여중 ‘매화 반’ 교실 - 오후 : 종희의 과거

시험 전 쉬는 시간, 아이들, 각자 시험공부에 집중 하고 있다. 쥐죽은 듯 조용하다.  
종희, 벼락치기 중인 짝궁에게 자꾸 끼어들며 잘난척한다.

**종희**

나 그거 아는데... 그거 되게 쉬운 건데, 내가 예상문제 짚어 줄까?

짝궁, 종희의 의자를 발로 뺨! 찬다. 종희, 의자에 앉은 채로 넘어져 쓰러진다.

### 짜꿍

공부도 존나 못하는 게...!

학생들, 일제히 피식! 웃는다. 중희, 발끈. 짜꿍을 노려보며,

### 중희

부모님도 이혼한 주제에!

살벌한 침묵, 흐른다. "이혼한 부모님"과 사는 이십여 명의 아이들, 하나 둘, 스윽 일어나 중희를 노려본다.

## 25. 원성 여중 '매화 반' 교실 - 저녁

### 중희

(움짤하며 버럭)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숙, 움짤.

## 26. 원성여중 '매화 반' 교실 - 오전 : 미숙의 과거

영어 수업 시간. 학생들, 미숙을 빤히 바라보고 있다. 시뻘건 얼굴의 미숙, 영어 교과서를 꼭 쥐어 본다.

### 미숙

... 선생님이... 첫 사랑 얘기 해줄까?

### 학생들

(완전 무관심)

아니요~!

## 27. 원성 여중 '매화 반' 교실 - 오후

참담한 분위기! 시뻘게진 미숙, 핸드폰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는다.

### 미숙

(저음의 카리스마)

그래, 나 영어 못한다.

### 중희

영어도 못하면서 수업까지 대충 한다고, 애들이 다 싫어해요!

## 미숙

(울음이 터질 듯 얼굴이 일그러진다)

진짜?!

와락- 책상에 엎드려 버리는 미숙.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짤리고, 대충 하면 대충한다고 욕먹고, 도대체 어찌라는 건지 모르겠다.

종희, 선생님이 저러 건 말 건, 심통 난 얼굴로 하던 공부를 계속 한다.

미숙, 갑자기 벌떡 일어나 종희의 두 팔을 덩석 잡더니, 비장하게.

## 미숙

우리 둘이 죽어라 하면 뭘 못 하겠니!

일단, 니 공연 친구는 내가 구해줄 테니까,

대신 넌, 니 아빠 감시하는 걸 도와줘!

이 유리는...

(결의에 찬, 사악한 미소)

선생님이 어떻게든 해볼게, 어때?

## 종희

(울컥)

고맙...습니다..., 선생님!

## 28. 종로 영어 학원 - 이른 새벽

영어 프리 토킹 시간. 미숙과 40대 직장인,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마주 섰다.

비짜 긴장한 미숙, 핸드폰을 꼭 쥐다. 직장인, 친절한 미소 지으며 입을 여는데,

## 미숙

(저음의 카리스마)

예민한 질문은 하지마세요!

미숙, 위협적인 눈빛을 쏘아댄다. 일동, 당황스럽다. 직장인, 고개 가우뚱. 다시 친절한 미소 지으며,

## 40대 직장인

What subjects are you teaching in school, now?

(자막: 당신은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미숙, 이를 악 물더니, 버럭!

## 미숙

Pass!

(자막 : 통과!)

이 무슨 프리토킹인가? 일동, 황당무계하다. 미숙, 애꿎은 직장인을 살벌하게 찌려본다.

## 29. 유리의 방 - 이른 아침

고급 빌라 원룸. 부스스한 물골로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는 유리, 표정 난감하다.

*우리 집 주인 큰 딸네가 망했대요 - 양 미숙*

유리, 뒤 돌아 본다. 어느새, 방구석에 자리 잡고 앉은 미숙의 뒷모습.  
두 사람,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인해 흡사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미숙, 커다란 이삿짐 가방을 풀기 시작한다. 각종 건강 보조제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미숙**

유리 선생님은 참 착한 분이세요!

**유리**

(애써 착한 표정)

필요... 형편 되는 사람이 도와야죠...

근데, 큰 딸네가 망했다고 세입자를 쫓아내요? 도저히 이해 안 가네...

**미숙**

(짐을 푸는 속도, 점점 빨라진다)

그러게나 말이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유리의 거울을 떼 내고, 자신의 거울을 벽에 거는 미숙.  
미숙의 거울에 붙은 스티커, <1등에 목을 매느니 목을 매겠다>. 유리, 미숙의 경구를 보여 고개 갸우뚱.

**유리**

왜 굳이 1등을 안 해요, 양 선생님?

**미숙**

(유리를 찌려보며, 버럭)

세컨드면 됐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아차.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놈의 성질! 유리, 어안이 병병한데, 미숙, 뽀족한 말투로 뜯금없이,

**미숙**

달 표면을 세컨드로 밟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몰라?

세컨드로 남극 정복한 사람은?

토리노 동계올림픽 크로스컨츄리 클래식 주범 남자 개인 2등, 그러니까 세컨드는?

유리, 당연히(?) 대답 못 한다. 미숙,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콧방귀.

### 미숙

그렇게 다들 1등만 외우니까 추잡스럽게 1등만 하려고 하는 거지!  
친.박.하.게.

유리, 왠지 마음 상한다. 음악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서 선생의 목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운다.  
미숙, 갑자기 유리를 착. 째려보며 대뜸.

### 미숙

혹시 두 사람!  
...살도 좀 당고 그랬나?

### 유리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 살만... 조금...  
(미숙, 죽고 싶다. 유리, 몸서리치며)  
아으, 전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

### 미숙

거... 짓...말...

### 유리

전 사랑하는 남자랑 두 손 꼭 잡고, 잠만 자는 게 소원이예요, 언니.

### 미숙

(붉어진 두 눈으로 유리를 노려보며)  
... 두 손 꼭 잡고, 뒤로 헤보는 게 소원은 아니고?

### 유리

(혐오스런 표정, 단호하게)  
결혼한 다음엔 몰라도, 그 전엔 싫어요!  
그 때까지 못 참겠다면, 그런 남자랑은 끝내야죠!

벌떡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 버리는 유리. 쿵! 바로 한 방 먹는 미숙.  
그래 너 잘났다... 붉어진 두 눈에 한 줄기 눈물 찌루룩.

## 30. 벨리댄스 학원 - 저녁

불타듯 시뻘개진 미숙,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벨리를 추고 있다. 때 마침 지나는 은교에게 툭. 한마디.

### 미숙

일단, 힘내요, 선생님!

은교, 이게 뭔 소리인가? 싶다. 미숙, 점점 격해지는 '분노의 벨리'.

### 31. 포르투갈 음식점 - 저녁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 터져 나오는, 파두 (포르투갈 음악) 여기수의 노래가 흐른다.  
근심 가득한 얼굴의 미숙, 혼자 우적우적 음식을 먹고 있다.

어느새 음식점에 들어 선 종희, 게걸스럽게 먹고 있는 미숙 앞에 우두커니 서 있다.  
뒤늦게 종희를 발견한 미숙, 지레 화들짝 놀란다. 괜한 목청 돋우며,

**미숙**

내가 생각을 해왔거든?

**종희**

(주변을 둘러보며)

나랑 같이 공연할 애는요? ...어디 있어요?

**미숙**

너, 솔직히 말해봐. 너도 공연하기 싫지?

(종희, 고개 끄덕. 미숙, 표정 밝아진다)

그래! 나도 공연하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공연 전에 니네 부모님 이혼을 막자!

**종희**

(당황한다)

우...리...요?

**미숙**

(바보 같은 표정)

어.

**종희**

같이 공연할 사람, 못 구한 거예요?

**미숙**

(썰렁한 침묵이 흐른다)

...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일단 준비는 해왔거든?

종희, 사색이 된다. 미숙, 기름 묻은 손으로 꾸벅꾸벅 대본을 건넨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미숙**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애긴데, 수준도 높아서 우리 둘이 하기 딱 좋아...

종희, 울음이 터질 듯, 주저앉아 버린다. 울먹이며,

**종희**

죽을 때까지 애들이 괴롭힐 거야...

미숙, 움찔. 큰소리 땡땡 치기 시작한다.

**미숙**

걱정 마, 종희야. 절대 우리가 공연할 일은 없을 거야!  
...왜냐면, 우리는 그 전에 반드시 니네 부모님 이혼을 막을 거니까!

**종희**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요?

**미숙**

(어깨 으쓱)

이 유리는, 결혼할 때까지 못 참는 그런 남자랑은 당장 끝낸다!

## 32. 원성여중 어학 실 - 밤

어두컴컴한 학교, 어학 실 창문을 통해 희미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온다.

어학 실 구석자리, 미숙과 종희, 찰싹 붙어 앉아 두 손 모으고 기도 중.  
노트북 모니터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춘다. 두 사람, 비장하다.

노트북 모니터 윗 단에 붙여 놓은 노란 포스트잇, 시뻘건 사인펜으로 써 놓은 문구.

**“ 이 유리는, 결혼할 때까지 못 참는 그런 남자랑은 끝낸다. ”**

모니터에 떠 있는 메신저 대화 창. 핑퐁! <이유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창이 쏙쏙 떠오른다.

**미숙**

두고 봐, 애 이제 금방 떨어져 나갈 거구!  
그럼, 니네 부모님도 이혼 안 한다!

갑자기, 책상에 놓인 서 선생의 핸드폰, 울린다. 발신자 '이유리'. 미숙, 발끈. 키보드를 두드린다.

**서 종철님 : 앞으로는 문자도 전화도 하지 맙시다 우리는 여기서만 만난다!**

**미숙**

그럼, 우리는 공연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화이팅!



미숙, 잘근잘근 입술을 깨물며 신들린 듯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서종철 남 : 나 너랑 자고 싶어서 죽겠어**

'문장이 어째 영...' 종희, 고개 가우뚱. 미숙,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감 있게 덧붙인다.

**서종철 남 : 내 맘 알지?**

종희, 혀를 찡찡 차며, 노트북을 누아채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 **33. 유리의 방 - 밤**

**서종철 남 : 널 만지고 싶다. 깊숙이**

컴퓨터 책상, 의자에서 펄쩍 뛰어 오르는 유리. 얼굴 빨갱게 달아올라, 아무도 없는 방안을 연신 둘러본다.

### **34. 원성여중 어학 실 - 밤**

**이유리 남 :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선생님! 저 무서워요..**

미숙, 오후라 ~ 종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숙**

우리 종희... E.Q는 높구나...

**종희**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깨 으쓱. 더욱 여세를 몰아, 자판을 두드리는 종희.

**서종철 남 : 니 팬티를 입고 싶다. 박박 찢어버리고 싶다!!**

유리, 놀랐는지 답 글이 올라오지 않는다. 아싸~! 신이 난 미숙, 자판 뺏어 두드리기 시작한다.

### **35. 유리의 방 - 밤**

**서종철 남 : 널 먹고 싶다. 벗어봐, 지금**

유리, 경악한다. 일그러지는 얼굴.

### 36. 원성여중 어학 실 - 밤

미숙, 충혈 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며 미친년처럼 웃어댄다. 으하하하하  
책상에 엎드린 자세로 턱을 귀 중희, 피식 웃는다. 미숙, 미주보며 웃는다. 중희, 뿌듯한 표정으로,

**중희**

선생님은 제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미숙, 은근 슬쩍 외면하는데, 중희, 미숙의 손을 덥석- 잡는다.  
심각한 얼굴로 모니터를 가리키는 중희. 유리의 답 글이 올라온 것.

*이유리 님 : 안.. 입고 있었는데..*

**미숙**

갑자기 이게 뭐 소리야...

**중희**

(울상)

방금 선생님이 벗으라 그랬잖아요, 팬티...

어학실 안,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타타닥, 다시 글이 뜬다.

*이유리 님 : 여보세요?*

**미숙**

...애, 미친 거 아니니?

미숙과 중희, 상당히 불길해진다

### 37. 원성 여고 교정 - 방과 후

유리와 서 선생, 교정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유리, 얼굴 빨개지며 머뭇대다가,

**유리**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준비했어요...

서 선생, 어리둥절. 유리, 꼬깃꼬깃 접은 무언가를 서 선생의 주머니 속으로 얼른 집어넣고, 후다닥 자리를 뜬다.  
혼자 남은 서 선생, 조심스레 그 무언가를 꺼내 보면..  
곱게 접은 팬티 두 장. 하나는 빨간색 레이스, 다른 하나는 검정색 망사 팬티다.

이 무슨 감당치 못할 상황인가, 서 선생, 식은땀이 흐르는데, 여학생들, 서 선생에게 앞 다투어 인사하며 뛰어간다.  
서 선생, 심각한 얼굴로, 다시 팬티를 고이 집기 시작한다.

저 멀리 건물 모서리, 미숙과 종희의 얼굴이 빠르게 나와 있다. 손에 땀을 쥐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두 사람, 무슨 말이 오갔는지, 어떤 물건이 오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미칠 지경이다.

*서종철 남 : 여기서 우리가 나눈 대화는, 밖에서 얘기 꺼내지 말아줘  
그래야 짜릿하다! 부탁한다!*

### **38. 벨리 댄스 학원 앞 - 밤**

책가방을 맨 미숙, 풀쩍 튀어 나와, 맹수에게 쫓기는 고라니 마냥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한다.

*이유리 남 : 그럼, ... 매일 밤 여기서만 만나나요 ^^ ?*

### **39. 서 선생 방 - 밤**

서 선생, 잠들어 있다. 책가방을 둘러맨 종희, 까치발로 들어와 아빠의 핸드폰을 스윽 챙겨 넣는다. 나가려다 말고, 짹 잠든 아빠의 뺨에 뽀뽀 하는 종희.

*서종철 남 : 꼭 ... 매일.. 만나야 하나?*

### **40. 원성 여중 어학 실 - 밤**

별걸게 상기된 종희, 심각한 얼굴로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서종철 남 : 너의 사터구니 깊숙이, 내 코를 쑤서 넣는다*

별걸게 상기된 미숙, 고대 인도의 성애(性愛) 교과서 <카미슈트라>를 열심히 뒤지며 적당한 문구를 불러 주고 있다. <카미슈트라>, 여기저기 밑줄에다가 별, 당구장 표시로 새까맣게 닳았다. 두 사람, 무척 지치고 고단해 보인다.

*이유리 남 : 토 나와 이 번테*

미숙과 종희, 드디어, 아싸! 만면에 희망의 미소 떠오른다. 미숙, 자판을 뺏어 미친 듯이 두드린다.

*서종철 남 :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코를 풀어버린다 크르르릉..*

### **41. 유리의 방 - 밤**

몸서리치며 자판을 두드리는 유리 뒷모습.

*이유리 남 : 징그러워! 드러워! 꺼져! 이 번테 새끼야!*

## 42. 원성 여중 어학 실 - 밤

미숙과 종희, 동시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아멘!

*이유리 님 : 그래서, 좋아!*

미숙과 종희, 동시에 고개 꼭 숙인다.

## 43. 유리의 방 - 밤

유리, 최면에 걸린 양, 모니터를 향해 두 팔을 뻗어 원을 그리며, 무어라 중얼중얼. 만면에 쾌감이 감돈다.

### **종희 목소리**

*(절망 가득한)*

*선생님, 우리.. 아무래도 공연해야 될 것 같다..*

## 44. 원성 여중 교정 - 점심시간

학생들, 삼삼오오 모여 “1+1=무한대야”를 위한 연습을 하고 있다. 힙합 댄스, 개그 쇼 등 화려한 볼거리들 많다. 학생들의 발길이 뜸한 체육관 담장 밑, 나란히 기대앉은 미숙과 종희,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습 중 이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두 사람.

### **미숙 목소리**

*(절망 가득한)*

*미안하다. 나도 개가 그런 애인지 미처 몰랐다.*

근처를 지나던 몇몇 학생들, 연습 중인 미숙과 종희를 흘끔댄다. 종희, 슬그머니 미숙에게서 떨어져 앉는다.

## 45. 원성여중 어학 실 - 밤

미숙, 멍청하게 앉아 무언가 반복적인 문장을 치고 있다.

종희, 절망적인 심정으로 <고도를 기다리며> 를 연습 중. 미숙, 팔이 저려온다. 점점 속도가 떨어지는데,

*이유리 님 : 빨리! 더 빨리!*

미숙, 움찔. 보다 못한 종희, 미숙을 밀쳐내며 교대!

## 46. 유리의 방 - 새벽

화면 하단, 끝없이 이어지는 자막.

서종철 남 : 커진다커진다커커진다커진다커진다커진다커진다커진다커진다...

흡족한 표정의 유리, 모니터를 향해 두 팔을 뻗은 채 흐느적댄다.

#### 47. 원성여중 · 고 소각장 창고 - 오후 : 몽타쥬

어두컴컴한 창고 안. 분노와 찬 미숙과 종희, <고도를 기다리며> 대사 연습 중이다.

**유리 목소리**

(최면에 걸린 듯)

... 커진다... 커진... 다... 커진다

#### 48. 벨리 댄스 학원 - 늦은 저녁 : 몽타쥬

시벨건 미숙, 애꿎은 은교를 노려보며 '분노의 벨리'를 추고 있다. <고도를 기다리며> 대사를 중얼대며.

**유리 목소리**

... 너는 커진... 다... 너는... 커진...

#### 49. 원성여중 · 고 구름다리 - 오후 : 몽타쥬

미숙과 서 선생, 우연히 마주친다. 서 선생, 미숙에게 인자한 미소 지어 보이는데, '원망'으로 뿔뿔 뭉쳐진 미숙, 서 선생의 등짝을 철퍽! 후려치고 가버린다.

**유리 목소리**

(갑자기 거친 숨 들이키며)

커...진다... 커히...히..... 커... 히... 쿵!

#### 50. 유리의 방 - 새벽

헉! 낮은 외마디 비명! 모니터를 향해 두 팔을 뻗은 유리, 파르르. 속눈썹 떨린다. 창 밖, 이미 날 섰다.

#### 51. 원성여중 · 고 구름다리 - 오후 : 몽타쥬

잔뜩 화난,八字 걸음으로 멀어져 가는 미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서 선생. 재를 어찌하면 좋을까... 한숨 푹-

#### 52. 원성여중 여학 실 - 새벽

<고도를 기다리며> 대본 위에 얼굴을 파묻고 잠든 종희, 피곤에 절은 물골이다. 콧물콧물- 기침을 시작한다.

### 53. 종로 영어 학원 - 새벽

영어 회화 수업 중. 불이 켜 패인 미숙, 앉아있다. 자세히 보면, <고도를 기다리며>를 펴놓고, 눈뚫 채 졸고 있다.

### 54. 원성여중 양호실 - 점심시간

#### 양호 선생

(고개를 질레질레 흔들며 옆 선생에게 소곤댄다)  
무슨 Two job 뛰나 봐. 맨날 점심시간마다 저렇게...

미숙, 아픈 학생들 사이에 꺼 누워 정신없이 자고 있다. 한 손에 핸드폰을 꼭 쥔 채.  
무슨 꿈을 꾸는 지 젖은 속눈썹 밖으로 눈물이 흐른다. 쿵쿵쿵- 잔기침을 시작한다.

### 55. 원성여중 · 고 - 밤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학교, 쥐 죽은 듯 고요하다.

#### 종희 목소리

(걱정 가득한)  
오늘도 들어오면 어떡해요, 선생님?

#### 미숙 목소리

... 애는 기운도 좋아...

### 56. 원성여중 어학 실 - 밤

수면 부족으로 쉰 미숙과 종희, 둘 다 누런 한방 팩을 얼굴에 붙인 모습, 매우 진지하다.

둘 다, 감기에 걸렸는지 수시로 기침한다.

서로 등을 맞대고 양쪽 팔짱을 낀 채, 상대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는 “콩쥐팍쥐 동작”을 시작하는 두 사람.

종희, 공... 하는 신음 소리와 함께 미숙을 번쩍 들어 올린다. 미숙, 허공에 뜬 채, 힘겹게 대사 시작

#### 미숙

여러 가지로 고마웠소.

이번엔, 미숙이 힘겹게 종희를 들어 올리고, 종희는 허공에 뜬 채,

#### 종희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동작을 반복하며, 힘겹게 대사연습 해 나가는 두 사람.

**미숙**

천만에..

**종희**

아니 정말 고맙습니다.

**미숙**

무슨 말씀.

**종희**

아니 정말 고맙습니다!

**미숙**

원 별소릴 다하는 군.

**종희**

아니 정말...

(목소리 툠 바뀌며)

우리 꼭 이러면서 대사를 해야 돼요?

**미숙**

우리 혈액순환이 필요해.

**종희**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미숙**

좀만 참아... 하다 보면 수준 높아져.

**종희**

아니, 정말 고맙...

(허공에서 버둥대며)

나, 그만 할래요!

쿵! 미숙, 종희를 거칠게 내려놓는다. 종희, 짜증내며,

**종희**

뭐든 열심히 하지 말라면서, 선생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미숙**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종희의 두 손을 잡으며)

그럼, 기도하자!

두 손 모아 기도를 시작하는 미숙과 종희. 종희, 지칠 대로 지친 한숨.

**종희**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미숙**

세상이 공평할 거란 기대를 버려.

우리 같은 사람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열렬히 기도하는 미숙과 종희의 너머로 노트북 모니터에 띄워 놓은 메신저 대화 창. 유리, 아직 들어오지 않은 듯.

## 57. 유리의 방 - 새벽

유리의 모니터, 메신저 대화 창이 떠 있다. “서 종철 - 접속 중” 깜빡인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유리, 무척 심란해 보인다. 바탕화면에 설정된 문구. 유리가 작성한 듯. <쉽게 넘어가지 말자>

## 58. 원성여중 어학 실 - 새벽

먹다 만 당근, 고구마, 동충하초 엑기스... 각종 간식과 음료수가 나뒹구는 책상 위.

**종희**

선생님 아빠는 어떤 분이세요?

**미숙**

어 ...나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도 몰라.

그래도, 엄마는 나 태어나고 돌아가셨어!

종희, 미숙을 안쓰럽게 바라본다. 미숙, 저 혼자 시뻘게지더니, 버럭 화낸다.

**미숙**

니가 몰라서 그러는데, 부모가 살아있는 거 보다, 죽고 없는 게 더 좋아!

부모가 안 죽어서 피곤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종희**

그래도 난,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미숙**

(종희를 췌려본다)

니가 이래서 친구가 없는 거야!



**종희**

(뻔뻔하게 배시시- )

나한테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거, 참. 닭살스러워서- 무색한 침묵, 흐른다.

**미숙**

...니네 엄마랑 아빠는 맨 처음에 어떻게 만났나?

**종희**

음... 엄마가 아빠보다 8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29살 때,

술 먹고 오토바이 타다가 택시랑 박았대요.

(미숙, 헉!)

그래서, 1년을 입원 했었는데,

그 때, 대학생이었던 아빠는 착한 일 하고 싶다고

그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고,

그러다 거기서 두 사람이 눈 맞았는데...

종희, 갑자기 입을 꼭 다문다. 미숙, 궁금해 죽겠다. 두 눈 뚱그랗게 뜨고,

**미숙**

... 눈이 맞았는데?

종희, 헉. 미숙을 외면해 버린다. 미숙, 어라? 종희를 툭 치며,

**미숙**

왜 이래? ...뭘야, 나랑 연애해?

...왜 말하다 말아!?

(얼굴에 붙은 팩이 툭 떨어진다)

**종희**

그게... 쯔... 외설 적인 면이 있어서,

**미숙**

괜찮아, 나도 외설적이야!

**종희**

그러니까... 엄마가 날 임신 한 거예요, 전신 기브스 한 체로!

**미숙**

(앵? 도무지 상상이 안 간다)

아니, 어떻게?

**종희**

그것도 6인용 병실에서!

**미숙**

그게 가능하단 말야?

**종희**

방법은 안 가르쳐 줘서, 저도 몰라요.

(미숙, 괜히 저 혼자 시뻘게진다)

어쨌든, 엄마가 절 임신한 걸 알고 먼저 프로포즈 했는데,  
아빠가 바로 넘어왔대요.

**미숙**

(두 눈이 반짝)

어떻게 했는데?

**종희**

별 거 없어요!

그냥, 아빠한테 딱 한 마디 했대요.

**미숙**

임신했으니까 책임지라고?

**종희**

에이, 찌질하게!

(미숙, 당황한다)

## 59. 6인용 병실 - 과거 :16년 전

전신 기브스한 29살의 은교, 누워 있다. 21살의 서 종철, 치렛! 자세로 서 있다. 은교, 서 선생을 힐끗 쳐다본다.

**은교**

서 종철아!

난 니가 참 마음에 든다!

**종희 목소리**

딱 그 한 마디!

## 60. 원성 여중 어학 실 - 새벽

미숙의 시뻘건 뺨에 한 줄기 눈물 주르륵. 이때, 덩동! 모니터 귀퉁이에 떠오르는 메시지,

*‘이유리님이 서종철님에게 대화를 요청하셨습니다.’*

미숙과 종희,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다.

**미숙**

(렝한 눈빛)

더 이상 못해먹겠다.

전략 수정하자!

## **61. 원성여중 · 고 소각장 - 점심시간**

연기가 피어오르는 소각로 옆 창고, 초조한 표정의 유리, 주변 눈치를 살피며 창고 안으로 들어선다. 화면 위로, 컴퓨터 모니터처럼 커서가 깜빡인다. 타다다닥...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문장.

*서종철님 : 더 이상 못 참겠다 보여줘, 바로 내 눈앞에서!*

유리, 창고 바닥에 널 부러져 있는 쓰레기 포대들을 구석으로 밀어 넣는다. 버려진 체육 매트 하나를 잘도 찾아내 곱게 바닥에 깔더니 저 혼자서 얼굴 발그레.

*서종철님 : 너는 나만의 라이타!*

*이유리님 : 라이타..요?*

*서종철님 : 내 몸에 불을 지르는 나만의 라이타!*

유리, 문틈을 통해 밖을 살피며 옷매무새를 확인한다. 잔뜩 긴장한 모습. 유리의 등 뒤로 보이는 높다란 쪽창. 창밖으로, 종희 얼굴이 뼈죽이 솟아 올라와 있다.

창고 밖 담장 밑, 종희를 무등태운 미숙이 땀을 뻘뻘 흘리며 비틀대고 있다.

**종희**

(창고 안을 훑쳐보며, 미숙을 향해 속삭인다)

단추 하나 더 풀고 있어요. 야한 브라자 입었어!

창고 안, 시간을 확인하는 유리. 초조한 표정으로 중얼중얼...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듯.

*서종철님 : 라이터를 러시아어로 말해줘. 섹시하게 말해줘! 정확하게 69번! 러시아어로!*

창고 밖, 종희를 이고 있느라 시뻘게진 미숙, 땀을 뻘뻘 흘린다. 종희, 두 눈, 휘둥그레지더니 다급하게,

**종희**

아빠 왔다!

창고 문, 숙-열리고 서 선생, 들어선다. 근심 가득한 얼굴, 쇼핑백을 들고 있다. 수줍게 그를 맞이하는 유리, 체육 매트 위에 벌렁 눕는다. 서 선생, 땅이 꺼질 듯 한숨 쉰다.

## 서 선생

이 선생님... 갑자기 무슨 일로...

## 유리

(대뜸, 색정적인 미소 지어 보이며)  
자지깡까! 자지깡까...

서 선생, 얼어붙는다. 창밖에서 훑쳐보던 종희의 눈, 휘둥그레. 미숙을 향해 속삭이며,

## 종희

러시아말로 라이타가.... 저거야?

시뻘건 미숙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 떠오른다.

## 미숙

(감격에 겨운)  
고맙다, 종희야!

창고 안, 유리, 연신 자지깡까를 외치며 체육 매트에 몸을 비벼대기 시작한다. 민망해 못 봐주겠다.  
서 선생, 애써 그 모습 외면하며, 손에 든 쇼핑백을 건네려 다가간다.

## 유리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선생님!  
(이번엔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신음 소리 섞어가며)  
아으... 서 선생님.... 아...! 아...! 자지깡까... 자지깡까...!

엉덩이를 상하로 들썩이며 리듬을 타는 유리, 정말 최선을 다 한다. 서 선생, 두 눈 질끈 감아 버린다.  
캁!!! 문 닫히는 소리!  
유리, 어머니! 벌떡 일어나 앉는다. 서 선생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 유리

(당황해서 소리치며)  
서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서 선생님, 저 무서워요~!

창고 밖, 서 선생, 심각한 얼굴로 언덕길을 내려간다.  
창고 안, 망연자실한 유리. 땕땕~! 유리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다.

*‘ 우리 와이프가 훨씬 땕땕다. 넌 실망이구나. 안녕! - 서 종철 ’*

창고 밖, 미숙과 종희, 핸드폰 폴더를 닫으며 사악한 미소, 씨익-

## 종희

감사의 기도, 드리자.

근처를 지나던 여중생 두 셋, 흠바닥에 앉아 기도하는 그들을 발견한다. 저희들끼리 키득대며 쓱덕쓱덕.

### 미숙

(두 눈 감은 채)

근데, 너... 믿는 게 뭐냐?

### 종희

(역시 두 눈 감은 채)

...선생님은?

### 미숙

... 나도 뭐... 딱히 믿을만한 게 있었어야 말이지...

두 사람, 그 동안 수면 부족에 마음고생 많았는지, 켕하니 아위었다.

## 62. 원성 여고 교실 - 오후

학생들, 문학 교과서에 실린 시를 큰 소리로 읽고 있다. 백석의 시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南新畿州柳洞朴時逢方)”

### 학생들

이 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교단에 선 서 선생, 비통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 63. 원성 여중 소각장 창고 안 - 늦은 저녁

유리, 체육 매트 위에 엎어진 채 미동도 없다. 낮에 그 모습 그대로. 창고 안, 쥐 죽은 듯 고요하다.

매트 위, 서 선생이 남기고 간 쇼핑백이 입을 헤- 벌린 채 엎어져 있다.

쇼핑 백 안, 그 동안 서 선생에게 건넸던 각양각색의 속옷들이 곱게 개어져있다.

## 64. 피부과 진료실 - 오후

### 미숙

제가 ‘믿음’을 한 번 가져볼까... 해요, 선생님.

시뻘건 미숙, 색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도를 기다리며> 를 건넨다.

의사, 음쭈. 이걸 또 무슨 책임가?

## 미숙

(뿌듯함이 담백 담긴 미소)

친구란 게요... 나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 같아요

말 안 해도, 막 통하면서 그러는 거 있잖아요...

내가 '키진다' 치면요,

개는 더 많이 '키진다키진다' 치는 거예요, 내가 팔 아플까봐!

그럼 난 또 개가 팔 아플까봐 더 많이 키진다키진다키진다...

미숙, 정신 빠진 사람 마냥 비실비실 웃으며 키진다 키진다..를 중얼댄다.

의사, 난감한 표정으로 차트에 무언가 적더니 간호사에게 건넨다.

*' 이 환자한테는 우리 병원, 담 주에 이사한다는 얘기 하지 말아요 '*

## 65. 종희의 방 - 저녁

종희, 처참한 얼굴로 각종 포르노 동영상을 보고 있다. 낮 뜨거운 다양한 체위가 펼쳐진다.

어쩐 일인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종희, 책상 위에 놓인 엄마, 아빠 사진을 찢어 버린다.

## 66. 유리의 방 - 저녁

서 선생의 음악방송, 흐른다. 선곡된 음악마다 쓸쓸하기 그지없다.

소금물에 발 담근 채, <고도를 기다리며> 를 연습하고 있는 미숙. 핸드폰 문자, 도착한다.

*나한테는 선생님밖에 없어요 - 서 종희*

발그레해진 미숙, 무어라 답장을 보낼까... 썼다 지웠다를 반복만 하고 있다.

화장대 앞에 앉은 유리, 쌍꺼풀 라인에 아이세도우를 바르고 있다. 표정, 비장하다.

유리의 긴 머리, 싹둑 잘려 빠글빠글 묶어져 있다. 미숙, 그런 유리를 문득 본다. 살짝 안쓰러운 눈빛.

유리, 갑자기 획, 돌아앉으며,

## 유리

언니, '서'가 좀 이상해.

유리, 한 쪽 눈에만 아이세도우를 바른 모습, 두 눈에 애처로움이 가득하다. 기괴하다.

## 유리

자기 혼자 끝냈다가, 먼저 연락했다가,  
다시 또 끝냈다가, 지금은 문자 보내고...!

## 미숙

문자? 무슨 문자?!

미숙, 순식간에 시뻘게진다. 유리, 핸드폰 문자를 보여준다.

‘그대가 너무 변한 것 같아 걱정 됩니다 - 서 종철’

**유리**

사실, 변한 건 내가 아니라 ‘서’ 거든?

미숙, 불안해진다. 유리, 다음 문자 보여준다.

‘그 날 이후로 연락 없으시길래,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었어요 - 서종철’

**미숙**

(예민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 안 끝났단 얘기야?!!

**유리**

아니~ 이걸 전에 끝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미숙**

전에? 언제? 언제 전에?!

**유리**

내가 ‘서’ 대신에 언니 데리러 고깃집 갔던 날...  
‘서’가 나랑 통화하는데 힘들어하는 거야, 와이프가 이혼얘기 꺼냈다고...  
그 때 난 느낌이 온 거지, 이게 끝이구나...

**미숙**

그 날, 둘이 끝났었다는 얘긴 안 했잖아!

**유리**

끝낼 때, 뭐 ‘우리 그만 끝내자!’ 그러면서 끝내나?  
그냥 느낌적인 느낌 딱 오면, 그게 끝인 거지.

**미숙**

(뺏속부터 끓어오르는 증오에 찬 고함)

연애하면, 연애한다! 끝났으면, 끝났다! 왜 말을 안 해?!  
니가 연애인이야?!!!

**유리**

(미숙의 팔짱을 착 끼며 치대기 시작한다)  
잉... 언니 빠졌구나~ 미안해애... 언니야

미숙, 어처구니없다. 유리, 울상으로 찡얼대기 시작한다.

**유리**

나도 사실 힘들었던 말야!  
'서'가 침에 연락 끊었을 때, 얼마나 메물찼었는데!  
그리고 나서 금방 또 연락하구, 밤마다 메신저로 불러내고!

시뻘건 미숙, 움찔! 유리, 미숙의 품에 안기며, 아련한 눈빛.

**유리**

근데, 언니...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니까... 정말 미친 듯이 깊어지더라.  
그래서, 이번엔 나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서 선생의 문자를 다시 보더니, 울먹이며)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뭘 어찌자는 건지 모르겠어, 언니!

**미숙**

(애원한다)

내가 말했잖아, 남자는 원래 '그냥'이야, 그냥!  
그러니까, 제발 깊이 생각하지 마, 유리 선생님.

**유리**

그래서, 나도 그냥. 다시 전화 했어, 내가 먼저!

미숙, 사색이 되며 휘청!

유리, 핵. 팔짱 풀더니, 다시 거울 앞에 앉아 나머지 눈에 아이세도우를 바르기 시작한다.

**미숙**

(화다닥. 유리의 팔을 잡아 채 팔짱끼며)  
그래서, 전화했는데, 뭐? 왜 말하다 말아?

**유리**

나 지금 나가야 돼요. 그 이 만나려.  
혼자 술 마시고 있대.

**미숙**

왜 이래? 여자가 자존심도 없어?

유리, 정말 자존심도 없이 고개 끄덕인다. 잔뜩 억울한 표정으로,

**유리**

난 여태까지 맨날 그랬단 말야, 언니.



다들 나 좋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내가 겨우 좋다고 하잖아? 그럼, 바로 다 떠났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두 눈에 눈물 그림)  
이번엔 직접 만나서 물어볼래!

유리, 벌떡 일어선다. 미숙, 너무 다급한 나머지 유리의 발목을 덩석 붙잡으며 매달린다.

**미숙**

(처절하게)

요즘 밤길이 위험하대요, 유리 선생님!  
어디서 술 마시는지 알려주고 가야 안심을 하죠!

**유리**

나 오늘 못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미숙**

(사색이 된다)

그거 물어보러 가는 데 외박은 왜 해?!

**유리**

(배시시. 웃더니 미숙을 와락. 껴안는다)

그냥 늦는다고 말하면, 언니가 잠 못 자고 기다릴까봐 그러는 거지~!  
나, 그 고깃집으로 가니까, 언니야 걱정 말고 꼭 자아~!

미숙, 뒤돌아 나가는 유리의 엉덩이를 본다. 실랑실랑 흔드는 것이 미칠 것만 같다.  
쾅! 문 닫히는 소리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찾는 미숙. 거의 빛의 속도로 문자를 보낸다.

*‘ 종희야지금니네아빠랑이유리가만난다.나도어떻게할테니까너도어떨..!’*

## 67. 서 선생 네 거실 - 늦은 저녁

발각.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방에서 튀어나오는 종희, 은교를 와락. 껴안는다. 종희의 두 눈, 눈물 그림!

**종희**

엄마는 진짜 예뻐!

## 68. 시내 골목길 - 늦은 저녁

사람들을 제치며 빛의 속도로 뛰는 여성이 보인다.  
시뻘건 얼굴의 미숙, 유리의 ‘수박색’ 원피스 입고, 유리 구두에, 유리 가방까지 맨 채, 목숨을 다해 달리고 있다.

## 69. 고깃집 - 늦은 저녁

수줍게 들어서는 유리, 주위를 둘러봐도 서 선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저 구석 테이블, 서 선생의 핸드폰, 올린다. 유리, 후다닥. 다가간다. 발신자 '딸래미'

태풍이 지나간 자리 마냥 초토화 돼있는 테이블 위, 방금 전까지 술을 마셨던 흔적이 여실하다.

## 70. 모텔 촌 거리 - 밤

미숙, 만취한 서 선생을 부축하며 걷고 있다. 미숙의 행색, 시뻘건 얼굴만 빼면 유리와 똑같다.  
서 선생, 충혈 된 눈을 게슴츠레 뜨고 미숙을 본다.

**서 선생**

(혀가 완전히 꼬였다)

너... 는... 누구냐...

미숙의 핸드폰, 계속 올린다. 발신자 '서 종희'. 미숙, 어떤 일인지 번뇌한다. 전화, 받지 않는다.

## 71. 고깃집 - 밤

서 선생의 핸드폰, 심 없이 올린다. 발신자 '딸래미'. 잠시 후, 또로롱~! 전원 끊어진다.  
유리, 서 선생 자리에 앉아 훌쩍훌쩍 소주를 들이 키고 있다.  
누군가 들어설 때마다 목을 빼고 쳐다보지만, 당연히(?) 서 선생이 아니고... 처량하기 그지없는 광경.  
이때, 유리의 핸드폰, 올린다. 유리, 발신자 확인하더니 갑자기 눈물 그렁하며 전화 받는다.

## 72. 모텔 <르네상스> 엘리베이터 - 밤

엘리베이터 안. 미숙, 만취한 서 선생을 부축하고 있다.

**'8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엘리베이터 문, 열린다. 미숙, 서 선생을 놓아주고는, 시뻘게진 얼굴로 고개 숙인다.

**'문이 닫힙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엘리베이터 문, 닫힌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고요하다.  
미숙, 고개 든다. 서 선생, 미숙을 바라보고 섰다. 시뻘건 미숙, 그와 눈을 맞춘다.  
이렇게 단둘이 눈을 맞춘 적은 처음이다.  
그의 촉촉한 눈이 내게 무언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숙의 가슴, 흥당흥당 뒸다.

서 선생, 어질어질하여 식별이 어려운데, 이 여자, 진정 유리와 흡사하다.

이때, 미숙의 핸드폰, 또 울린다. 발신자 ‘서 종희’. 미숙, 두 눈 질끈 감고, “열림” 버튼을 눌러준다.

### ‘문이 열립니다’

서 선생, 미동도 없이 우뚝 서서 미숙을 바라본다. 시뻘건 미숙,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 벽차오르는 감정에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서 선생, 점점 눈이 커진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뻘건 이 여자... 어라?

서 선생, 무어라 입을 여는데, 미숙, 까치발로 폴짝 뛰어올라 서 선생의 그 입술에 입을 맞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서 선생. 서 선생의 입술과 턱 사이 애매한 지점에 안착하는 미숙의 입술. 그래도 미숙, 황홀하다. 만취한 서 선생, 그만, 미숙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제대로 안착시킨다! 미숙, 온 몸이 시뻘게진다.

## 73. <르네상스> 모텔 객실 - 새벽

이불을 목까지 올려 덮고 누워 있는 미숙과 서 선생.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방 안 가득하다. 미숙, 더할 수 없이 행복한 표정. 서 선생, 참담하다.

### 미숙

(수줍게)

여기 모텔이요... 간판을...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글자도 훨씬 크게 해서... 우리나라 모텔 중에서 제일 크게!

미숙, 서 선생의 손을 잡는다. 다섯 손가락 짝 벌려 서로 엇갈리게 깍지를 꼭 낀다. 서 선생,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 미숙

(서 선생과 깍지 낀 손으로, 모텔 물품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저런 것도 다 금으로 만들구...  
...별도 다섯 개짜리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몹시 수줍어하며)  
우리가... 있는데...

참을 수 없는 침묵이 흐른다. 서 선생, 조심스럽게 깍지 끼워진 손을 빼며 입을 연다.

### 서 선생

저기... 혹시, 유리 선생님 못 봤어요?

## 74. 고깃집 - 새벽

만취한 유리, 배시시 웃더니 폭. 고개 떨군다. 음악 변, 조심스레 유리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한다.

**유리**

... 저는 외로운 팔자인가 봐요, 변 선생님.

유리의 볼을 타고 흐르듯, 눈물방울 떨어진다. 음악 변, 두 눈에 애처로움이 가득 고인다.

## 75. <르네상스> 모텔 - 새벽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미숙, 크게 심호흡하더니, 겨우 개미만한 목소리로,

**미숙**

...선생님, 저에 대해 어떤 마음이세요?

**서 선생**

...고맙고... 미안한 마음.

**미숙**

(서 선생을 살짝 흘겨보며 미소 짓는다)

거..짓...말..

**서 선생**

내가 왜 거짓말 하겠어요...

서 선생, 갑자기 존댓말로 바뀌어 있다! 순식간에 시뻘게진 미숙.

**미숙**

(벋속 깊숙이 끌어올려진 발성으로 소리 버럭)

고맙고 미안하다구요?

서 선생, 깜짝 놀란다. 미숙, 부들부들 떨며, 목소리 끝도 없이 커진다.

**미숙**

고맙고 미안해서, 저한테 문자 보내셨고!

고맙고 미안해서, 특수문자까지 붙여서 보내셨어요?

고맙고 미안해서, 재재제작년 연말 회식 때!

(은밀한 미소 짓는다)

저랑 같이, 티코 탔어요?

**서 선생**

무슨... 티코...요 ?

서 선생, 기억 못하는 듯. 당황한 미숙, 마침내 대단한 히든카드를 꺼내는 양, 저음의 카리스마.

**미숙**

그럼!

고맙고 미안해서... 월선이 전학 가는 날,

(수줍게 눈을 내리깔며)

...안아주셨어요?

**서 선생**

...누구를... 안아요?

**미숙**

엄!월!선!

제작년에 전학 간 우리 반 학생!

**서 선생**

저기, 양 선생님...

**미숙**

(당당하게 버럭)

왜요!

**서 선생**

미안하지만, 그 학생은 기억이 안 나구요,

근데, 특수문자라니...?

**미숙**

교무 회의 때... 그 문자!

(핸드폰 다급히 꺼내들며. 애절하게)

선생님... 제발... 저한테 이르지 마세요...!

미숙의 핸드폰, 전원 들어오자마자, 부재중 전화 알람이 정신없이 울리기 시작한다.

밤새 걸려온 듯, 끊임없이 울리는 알람. 모두, 발신자 '서 종희'. 당황한 미숙, 연신 종료 버튼 눌러댄다.

**서 선생**

...혹시, 그거? 자동으로 막 그림 붙고 그러는 거?

**미숙**

(동작 중단!)

...자동으로... 붙는다고요?

**서 선생**

(무심하게 툭.)

지난달에, 해제 시켰어요.

애들이나 쓰는 그림 서비스를 왜 하겠어요, 내가...

미숙, 머릿속이 하얘진다. 서 선생, 애써 태연한 척, 주섬주섬 옷을 입기 시작한다.

**서 선생**

한심한 업체들...

숨 막히는 침묵만 흐르는데, 갑작스런, 뽀뽀리밤~♪뽀뽀뽀!

서 선생, 옷 입다말고 폭 쓰러진다. 표정을 보니 심히 놀란 듯. 저도 놀란 미숙, 핸드폰 알람을 얼른 끄며,

**미숙**

(미안한)

...제가 새벽마다 영어 학원 다니거든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아차!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지? 미숙, 초점 잃은 눈으로 서 선생을 바라본다.

서 선생, 마저 옷 입기 시작한다. 손동작, 점점 빨라진다. 저 혼자 부르르 흥분하는 미숙, 서 선생을 노려본다.

**미숙**

못.생겨가지고!

서 선생, 두렵다. 미숙, 미친 듯이 옷을 찾아 입더니 순식간에 짐까지 챙겨 든다.

**미숙**

(절규한다)

그래도, 난 그 때 티코 안에서 진실했어!

꽝! 문 닫고 나가버린다. 혼자 남은 서 선생, 정신이 하나도 없다.

## 76. <르네상스> 모텔 앞 - 이른 새벽

얼굴부터 종아리까지 온 몸이 시뻘건 미숙, 두 눈에 눈물 그렁한 채 핸드폰 액정을 노려보고 있다.

회의 시간엔 줄지 마! ♡♡♡ \ (ㄱ.ㄱ) / (ㄱ.ㄱ) (ㄱ.ㄱ) / (ㄱ.ㄱ) / ♡♡♡♡♡ - 서 종철

저 멀리, 서 선생, 터덜터덜 걸어 나간다.

## 77. 서 선생의 집 - 오전

현관 앞. 은교, 팔짱을 끼고 섰다. 초췌한 서 선생, 고개 푹 숙인 채 마주 서 있다.

**서 선생**

(진심을 다해)

사랑해, 여보.

방문 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종희, 서 선생을 있는 힘껏 찌러본다. 밤새 한 숨도 못 잤는지 두 눈이 쾅하다. 종희, 핸드폰을 으스러지게 꼭 쥐며 부르르. 눈시울이 붉다.

## 78. 유리의 집 앞 - 오전

어스름하게 동이 터 온다. 미숙과 유리, 초췌한 물골로 떡 마주친다. 둘 다 화들짝.

**유리**

(어색한 미소)

어머, 언니... 지금 들어와...?

**미숙**

(어색한 미소)

어... 갑자기 아파가 아프서서...

**유리**

(고개 가우뚱)

아빠? 아빠 돌아가셨다면서?

**미숙**

(당황한다)

어... 그거 뻥이었어.

그런 뻥을? 어색한 침묵, 흐른다.

**미숙**

근데, 유리 선생도.. 많이 늦었네...?

**유리**

(당황한다)

나, '서'랑 있었던 거 아니야, 언니!  
우연히, 딱 여자 친구 만나서, 언니...!

근데... 언니...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미숙, 움찔)  
내 '수박' 원피스 입고 있네? 말도 없이...

미숙, 당황한다. 유리를 확 찌러보며, 벼락같은 고함 버럭!

**미숙**

아, 같이 살면서 치사하게 니꺼 내꺼 따지냐!?  
(유리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유리 움찔)  
근데... 딱 여자 친구? 유리 선생, 여자 친구 없잖아.

**유리**

그런 언니는 뭐! 아예, 친구 있나?

이때, 미숙의 핸드폰, 울린다. 발신자, 서 종희. 미숙, 고개 떨군다. 얼굴부터 종아리까지, 여전히 온 몸 시뻘겋다.

## 79. 원성여중 · 고 교문 - 오전

먹구름 드리워진 하늘. 이른 아침부터 후덥지근하고 습하다.

미숙과 유리, 출근한다. 두 여자, 수면 부족으로 쾅하다. 그새 더 아위었다.  
제 색깔로 돌아오지 않는 미숙의 시뻘겋 얼굴, 계속 시뻘겋다.

반대편, 서 선생과 종희, 교문을 향해 걸어온다. 두 부녀, 수면 부족으로 초췌하긴 마찬가지.  
특히, 종희의 얼굴에는 아이답지 않은 다크 써클이 짙다.

유리, 맞은 편 서 선생을 발견. 움찔. 놀라더니 몸을 숨기며 뛰어간다.  
서 선생, 도망치는 유리를 발견. 움찔, 걸음을 늦춘다. 종희, 그런 아빠를 원통한 눈빛으로 노려본다.

떨어져 걸어오던 미숙, 맞은편, 서 선생과 종희를 발견하고는 휘청!  
서 선생, 그런 미숙을 발견. 사색이 되어 걸음 재촉하는데, 서 선생의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다.

반질반질 행복으로 충만한 음악 번, 서 선생의 핸드폰을 건넨다. 종잡을 수 없는 이 상황. 종희, 의아하다.  
당황한 서 선생, 자신의 핸드폰을 받아들고는 서둘러 먼저 간다. 종희, 아빠의 뒷모습을 노려본다.

미숙, 한 손에 핸드폰을 꼭 쥐 채 사라지는 서 선생을 바라본다.  
교문 앞에 남은 미숙과 종희. 종희, 할 말을 양 볼에 잔뜩 담고 미숙에게 다가가는데, 미숙, 움찔. 지레 버럭!

**미숙**

(절규한다)

좋아한 것도 죄냐?!

**종희**

...우리 아빠 때문에 그러는 구나.

미숙, 사색이 된다. 종희, 미숙을 위로하듯 껴안는다. 미숙, 울컥- 주저앉아 버린다.

**미숙**

알고 있었구나...

**종희**

나도 선생님 좋아해요.

(미숙, 앵?)



아빠는 우리 그런 거 아직 모르니까, 걱정 마세요.

**미숙**

...그런 거라니?

**종희**

우리 그 채팅 사진!

나는 그냥... 어제 아빠도 선생님도 전화 안 되고, 아빠는 외박했지,  
이유리랑 아빠가 어떻게 된 건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미숙**

(단호하게)

우리 그만 끝내자!

종희, 응? 휘잉~ 바람 소리와 함께, 덜거거걱. 교문을 흔들며, 불어 닥치는 작은 돌풍!

**미숙**

(시뻘건 얼굴로 허공을 노려보며, 눈물 그림)

난. 니가. 싫.다!

“1+1=무한대야” 공지 게시판이 똥! 쓰러진다. 종희, 당황한다.

**종희**

...갑자기?

**미숙**

(획. 도망치듯 사라지며)

앞으론 나한테 문자도 보내지 마!

**종희**

(미숙을 향해 비락)

문자는 니가 먼저 보냈잖아, 맨날!

교문 일대, 학생들, 힐끔대며 지나간다.

**서 선생 목소리**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다)

당분간 음악방송 쉬겠습니다.

## 80. 유리의 방 - 저녁

컴퓨터 모니터, 서 선생의 음악방송 창이 열려 있고, 음악 방송 폐쇄 안내문이 떠 있다.

시벨건 미숙,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책상에 엮어져 미동도 없다.

무거운 침묵 속의 어두컴컴한 방. 책상 위, 아로마 램프에서 향이 피어오른다.  
"심신 안정을 위한 리벤더 향" "정신 집중을 위한 페퍼민트 향" "두뇌명쾌 유칼립투스 향" 등 각종 아로마 오일 병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 81. 이태리 음식점 - 저녁

유리와 음악 변, 미주 앉아 있다. 음악 변, 스파게티를 돌돌 말아 유리 입에 넣어준다. 유리, 넬름 받아먹으며 귀여운 미소 지어 보인다. 문득, 씩씩한 표정 스치는 유리,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치기 시작한다.

## 82. 중국집 - 저녁

테이블 중앙의 회전판, 갖가지 요리들이 놓여있다. 서 선생, 자기 앞 접시에 음식을 덜어 은교 앞으로 돌려준다. 최선을 다 하는 서 선생의 모습. 은교, 미소 짓는다. 종희, 서 선생을 노려보고 있다. 이때, 서 선생의 핸드폰, 문자 도착 한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 이 유리*

서 선생, 안색 변한다. 은교와 종희, 은근히 서 선생의 안색을 살핀다. 서 선생의 핸드폰, 또 문자 도착한다.

*너무 바쁘셔서 저한테 전화 못 하신 거죠? - 양 미숙*

서 선생, 헉! 은교, 안색 변한다. 종희, 표정 일그러지더니 핸드폰을 꺼내 문자 치기 시작한다.

## 83. 벨리 댄스 학원 - 저녁

벨리댄스 복장의 미숙, 안절부절 핸드폰 통화 중이다.

**고객센터 안내원 소리**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상대방이 문자를 확인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미숙, 미친 발광 한다. 문자 도착 알람 울린다. 미숙, 바로 확인, 표정 굳는다.

*어제, 아빠랑 이유리랑 같이 있었던 거 분명하죠, 선생님? - 서 종희*

미숙, 두 눈 질끈 감고, 벨리를 추기 시작한다. 또, 문자 도착한다.

*왜 자꾸 내 문자 씹어? - 서 종희*

미숙, 핸드폰 폴더 닫아버리는데, 또 문자 도착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답장 보낼 때까지 계속 보낸다 - 서 종희

미숙, 에잇! 핸드폰을 던지려는데, 또 도착하는 문자.

얼굴만 시뻘게가지구!! ^^ - 서 종희

정말 시뻘게지는 미숙, 바닥에 주저앉는다. 미친 듯, 문자 치기 시작한다.

## 84. 중국집 - 저녁

도대체제가뭘잘못한거죠? - 양 미숙

피어쓰기도 안 된 미숙의 문자. 서 선생, 사색이 된다. 종희, 표정 굳는다. 은교, 젓가락 내려놓는다.

은교

(차거운 시선으로)

서 종철아, 누나가 피곤하거든?

서 선생, 침담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종희, 울컥! 젓가락을 놓더니 발딱 일어나 나간다.

## 85. 이태리 레스토랑 - 저녁

탱! 유리와 음악 번, 와인 잔 부딪친다. 유리, 핸드폰 울린다. 유리, 단번에 원샷 하고 핸드폰 받는다. 음악 번, 후다닥. 유리의 집에 와인을 채운다.

유리

여보세요?

괴물 목소리

유부남이랑 자니까 좋냐?

유리, 헉! 음악 번을 째려보더니, 핸드폰을 든 채 후다닥. 밖으로 뛰어 나가며, 다급하게.

유리

아니, 번 선생님이 유부남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 86. 중국집 로비 - 저녁

종희,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고개 가우뚱.

종희

...번?

(소리 버럭)  
우리 학교 음악 변?

### 87. 이태리 음식점 앞 - 저녁

**괴물 목소리 (종희)**  
...년.. 변 선생이랑 잔거나?

유리, 순간 자기 입을 틀어막으며, 어머 어떡해!!

### 88. 중국집 로비 - 저녁

**종희**  
(바짝 긴장하며)  
그럼, 서종철은 누구랑 잤지?

**유리 목소리**  
(목소리 툠 날카롭게 갈라지며)  
서 선생님이 누구랑 잤어요?

**종희**  
(으박지른다)  
너랑 잔 거 맞잖아!

### 89. 벨리댄스 학원 - 저녁

미숙,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흔드는 벨리 동작 중,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핸드폰은 손에 꼭 쥔 채.

### 90. 이태리 음식점 앞 - 저녁

**유리**  
아니, 난 변이랑 잤다니까!!

유리, 또 다시 자기 입 틀어막으며, 머리를 쥐어뜯는다. 지나던 사람들, 유리를 힐끔. 쳐다본다.

**괴물 목소리 (종희)**  
거짓말 하지 마! 니네 둘이 잤다는 증거가 있어!

**유리**  
(발을 동동 구르며)  
나는 '서'랑 안 잔 게 아니라 못. 잤.다.니.까.요!

아, 나 진짜 열 받네!!!  
나는, 그 사람 핸드폰 밖에 못 봤어!  
음악 변한테 물어 보세요!

### 91. 중국집 로비 - 저녁

종희, 번뜩 떠오르는 기억.

### 92. 원성여중 · 고 교문 - 오전 : 종희의 회상

반질반질한 음악 변, 서 선생의 핸드폰을 건넨다. 서 선생, 당황하며 얼른 받아 챙긴다.

### 93. 이태리 레스토랑 - 저녁

유리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거야, 지금!!

### 94. 중국집 로비 - 저녁

종희

(당황하며 소리 버럭)

니가 서 종철 만나러 나간다고 말 한 건 사실이잖아!

### 95. 이태리 레스토랑 앞 - 저녁

유리

(더 크게 소리 버럭)

누가 그 말 안 했대?

근데, 내가 도착했을 땐 없었어!

그리고, 나는 분명히 다시 말했어, 그 사람 못 만났다고!

양 언니한테 물어보면 될 꺼 아니!

(갑자기 표정 굳는다)

근데... 너...누구...세요?

멍청한 표정으로 우뚝 선 유리,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싶다.

**괴물 목소리 (종희)**

난.. 서종철과 아주 아주 가까운 사이다, 어쩔래!

유리

(헉!! 주눅 든 얼굴로 조심스레)

혹시... 사모...님...이세요?

## 96. 벨리댄스 학원 - 저녁

미숙, 고개를 더욱 세차게 가로 저으며, 벨리를 춘다. 여전히, 핸드폰은 손에 꼭 쥔 채.

## 97. 이태리 음식점 앞 - 저녁

유리

(갑자기 박수 친다)

아! 사모님께서 양 언니 얘기를 앞만 듣고 오해하셨구나!

제가 분명히 다시 말했거든요, 못 만났다고...

(설득 조)

근데요 사모님, 양 언니 그 말만 듣고, 그게 증거라고 우기시면 곤란하죠..

어차피 그날 밤에 양 언니는,

저랑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구,

서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구,

자기 아버지랑 같이 있었거든요..

괴물 목소리 (종희)

...양 미숙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유리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아직 안 돌아가셨대요

## 98. 중국집 로비 - 저녁

종희

(의아한)

그런 뻥을?

## 99. 이태리 음식점 - 저녁

유리

제가 생각해도 뻥이 좀 심하다 싶긴 해요..

근데, 그게 뻥이 아니라면,

양 언니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단 얘긴데,

(니름 논리 정연하게)

그렇다면, 양 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랑 같이 있을 순 없는 거고,

그렇다고, 저랑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결국 서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다는 얘긴데..

갑자기, 말끝을 흐린다. 번뜩 뭔가 떠오르는 유리.

### 100. 유리의 집 앞 - 오전 : 유리의 회상

유리의 수박색 원피스, 구두, 가방을 매고 멀뚱히 선 미숙, 시뻘건 얼굴로 당황하며, 뭔가 켜기는 사람처럼.

### 101. 이태리 음식점 앞 - 저녁

유리, 핸드폰을 쥔 채 털썩 주저앉는다. 울음이 터질 듯한,

유리

...혹시... 둘이 잔 거 아냐?

### 102. 중국집 로비 - 저녁

종희, 순간 숨이 턱. 멎는다.

### 103. 원성여중 · 고 교문 - 오전 : 종희의 회상

시뻘건 미숙, 눈물 그렁한 두 눈 부릅뜨고 허공을 노려보며,

미숙

난. 니가. 싫다!

### 104. 이태리 음식점 앞 - 저녁

유리

(떨컹. 전화 끊기는 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모님?

유리, 소리 없는 포효 으아아아아아아!!

### 105. 벨리 댄스 학원 - 저녁

미숙, 정신 나간 여자처럼 벨리만 추고 있다. 핸드폰 문자 온다.

선생님 우리 아빠랑 잔 거 아니자? - 서 종희

사색이 된 미숙, 우뚝. 동시에, 핸드폰 울린다. 발신자 이유리! 미숙, 겁먹은 얼굴, 미동도 없다.

## 106. 중국집 룸 - 밤

서 선생과 은교, 묵묵히 식사 하고 있다. 종희, 핸드폰 손에 꼭 쥐 채, 입술이 비딱비딱 마른다. 갑작스런 핸드폰 벨소리, 은교의 핸드폰이다. 은교, 전화 받는다.

### 괴물 목소리

(다짜고짜 소리 버럭)

전화를 걸었으면, 상대방이 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예의 아냐?  
그렇게 끊으면 뭐, 내가 뭐, 다시 못 걸까봐?

은교,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들고 룸 밖으로 나간다. 서 선생과 종희만 남았다.

### 종희

(노려보며)

아빠, 양 미숙 선생님이랑 친해?

서 선생, 당황한다.

## 107. 중국집 앞 - 밤

### 은교

(차분하다)

너, 몇 학년 몇 반 누구니?

### 괴물 목소리

넌 양 미숙한테 속고 있어!  
이 유리는 서 종철이랑 안 잤어!  
서 종철은 양 미숙이랑 잤어!

은교, 표정 굳는다.

## 108. 이태리 음식점 앞 - 밤

핸드폰으로 통화 중인 유리, 이를 갈며 열변을 토한다.

### 유리

내 처음부터 두 사람, 수상하다 생각했어!  
같은 직장 선.후배면서,  
뭘 테리러오라 그러질 않나, 테러다 주라 그러질 않나,  
(비아냥대며)  
하긴, 사제시간이 더 짜릿하고 흥분되겠지!  
(달락. 은교, 전화 끊어버린다)



여보세요? 또 먼저 끊니?

유리, 다시 한 번 소리 없는 포효!!! 으아아아아아아아아

### 109. 벨리댄스 학원 - 밤

미숙, 캄캄한 어둠 속, 바닥에 엎드린 채 꿈쩍도 않는다. 문자가 온다.

*천박하게 남자한테 목을 매냐? 자존심도 없는 넌 - 이유리*

### 110. 피부과 병원 앞 - 오전

기력이 쇠해 뻥한 미숙, 휘청! 세상 다 끝난 표정이다.  
병원이 있던 자리, 파티 용품점 공사가 한창. 미숙, 때마다 지나던 경비원을 붙들고 늘어지며,

**미숙**

(울먹이며)

아저씨, 여기 있던 피부과 병원 언제 이사 갔어요?

**경비**

지난주에 갔는데?

**미숙**

(울음 섞인 목소리)

어디로... 갔는데요?

**경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시뻘게진 미숙, 주르륵. 한 줄기 눈물 떨어진다.

**미숙**

그럼 나는?

**경비**

피부과 병원 요 옆에도 두 개 있고, 길 건너에도 세 개나 있어, 아가씨.

미숙, 고개 꼭 숙인다. 핸드폰이 으스러지도록 꼭 쥘다. 닭똥 같은 눈물이 후두둑.

**미숙**

...그걸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요, 아저씨...

미숙, 긴 생머리에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꺾...꺾... 흐느끼는 소리만.

## 111. 원성여중 · 고 교문 - 오전

우중충한 하늘. 후덥지근하고 습하다.

<원성여중 · 고 제 100회 하나 되는 우주잔치> 축제날. 학교 전체가 벌써부터 들뜬 분위기다.

운동장. “1+1= 무한대야”를 위한 대형 야외무대가 설치되고 있어 번잡하다.

]

초체한 물결의 종희, 등교한다.

종희가 사라지자, 근처에 숨어 있던 은교, 비장하게 학교 안으로 들어선다.

뒤 이어, 피골이 상접한 미숙, 터벅터벅 출근한다.

### 학생 1 목소리

양 미숙 선생님이에요?

## 112. 원성 여중 교무실 밖 / 안 - 오전

복도를 뛰어 다니는 여중생들. 다양한 종류의 화려한 의상을 갖춰 입은 모습이 그럴싸하다.

은교, '3인조 여성 댄스 그룹' 복장의 여중생 무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 학생 1

(옆 친구에게)

우리 학교에 양 미숙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나?

교무실 안.

교무실을 제 집 안방 드나들듯 들락날락 하는 학생들, 교사들과 수다 떠는 모습들이 무척 친근해 보기 좋다.

개 중에는, 여 선생님의 머리를 빗겨 주는 학생도 보인다.

### 학생 2 목소리

우리 학교에 그런 선생님은 없는데요?

교무실 저 구석, 혼자 앉아 있는 미숙이 보인다. 미숙의 주위에는 동료 교사도, 학생도 한명도 없다.

교무실 밖.

저 멀리 종희, 싱큼싱큼 걸어온다. 학생 3, 종희를 발견하자, 문득 스치는,

### 학생 3

아~ 혹시... 재랑 맨날 붙어 다니던 그 사람인가?

### 학생 1

아~ 전파 친구!

(오만상 찌푸리며)  
그 사람 이름이 양 미숙이구나.

**학생2**  
(오만상 더 찌푸리며)  
아~ 그 전파 친구...!

보아하니, 미숙은 종희랑 붙어 다니는 바람에 덩달아 미움을 산 듯. 아이들, '종희와 미숙'이 정말 싫은가 보다.  
은교,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일단, 종희를 피해 기둥 뒤로 몸을 숨기며,

**은교**  
근데, 전파가 뭐니?

**학생3**  
전교 왕따요.

종희, 실성한 얼굴로 교무실에 들어간다. 뒤이어, 철썩! 소리 함께 약 하는 비명 소리.  
은교와 아이들, 후다닥. 열린 문틈으로 교무실 안을 들여다본다.

교무실 안.  
축제 준비에 들떠 있던 교사와 학생들, 일제히 얼어붙었다. 미숙, 한 쪽 뺨을 손으로 감싼 채 역시 얼어붙어 있다.  
종희, 한 손을 어정쩡하게 든 채 부들부들 떨며 미숙을 노려보고 있다.

**교사1**  
(미숙을 가리키며)  
저 분, 누구시죠?

옆 교사, 그저 고개만 가우뚱. 아, 미숙의 존재감이란

교무실 문 밖.  
그 광경을 목격한 은교, 얼어붙어있다. 근데...어라? 내 딸이 때린 저 여자는 우리 학생인데...?

**학생 1**  
양 미숙, 웬일이니...!

**은교**  
(화들짝. 학생 1을 돌아보며)  
누가 양 미숙 이라구?

**학생 3**  
저기 때린 애가 전파, 맞은 사람이 양 미숙 선생님...  
둘이 완전 무슨 이단에 빠져서, 맨날 밤새도록 기도모임하구요.

## 학생2

장난 아니래. 둘이 눈만 마주치면 손잡고 기도한대.

## 학생3

종교적으로 뭐가 서로 안 맞았나?

## 은교

(표정 굳는다)

저 여자는 우리 학원 다니는 '고두심' 씨인데.

아이들, 황당무계한 표정으로 은교를 본다.

교무실 안.

교사들, 못 볼 것을 본 양, 미숙을 외면한다.

교감 선생, 굳은 얼굴로 종희에게 다가선다. 미숙, 황급히 종희 팔을 잡고, 교사들을 향해 고개 숙인다.

## 미숙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 교사들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힘으로 몰아붙여 종희를 끌어내려는데... 움찔! 둘 다 일어불는다.

두 사람 앞에 우뚝 선 은교, 한 숨 폭 쉬더니, 단호하게,

## 은교

내가 너무 답답해서, 더 이상 품위유지를 못하겠다!

## 113. 원성여중 어학 실 - 낮

은교, 교단에 서 있다.

칸막이로 나뉜 책상 앞줄. 뚱한 종희, 시뻘건 미숙, 억울한 유리, 참담한 서 선생, 나란히 앉아 있다.

미숙의 부은 뺨엔, 종희의 손자국이 남아 있다. 은교, 유리를 바라보며,

## 은교

그러니까 '이'양은,

어떤 여자가 '음성 변조 서비스'로 나를 사칭했었고,

그래서, 나한테도 그렇게 한 거다. 이거죠?

(유리, 힘차게 고개 끄덕)

그런데, 난 그런 적이 없어요.

## 유리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양 언니는,

종희 학생한테는 내 욕 하고,

나한테는 서 선생님 욱 하고,  
사모님한테는 내 욱 하면서, 치밀하게 수를 써 왔잖아요.  
(미숙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  
그래서 말인데요, 그 괴물 전화도 양 언니가 한 게... 아닐까요?  
자기가 서 선생님이랑 잤다는 사실을 저한테 알려주려 구요!

**은교**  
아니, 왜?

**유리**  
(확신에 차서)  
저한테 사랑하려고요!

**은교**  
(고개 가우뚱)  
... 그런 복잡한 방법으로 사랑을 한다구?

미숙, 가슴을 친다. 참다못한 종희, 대뜸!

**종희**  
그 전화는, 내가 한 거야!  
그날 아빠가 이 유리랑 외박한 줄 알고  
(무심하게 덧붙인다)  
난 둘이 잔 줄 알았지.

**은교**  
(한숨 푹)  
모두 헤드폰 써 주세요.

일동, 책상에 놓여있던 어학용 헤드폰을 집어 든다. 은교, 눈앞에 놓인 사운드 스위치 버튼을 차례로 누른다.  
종희의 책상은 여전히 'OFF', 나머지 책상은 'ON'. 종희의 헤드폰만 소리 차단된다.

**은교**  
웬찮아. 병만 안 옮겨 오면 돼.  
(서 선생과 미숙, 고개 푹)  
...기분은 어땠니?

**서 선생**  
...나뻤어.

은교, 미숙을 흘끔 본다. 미숙, 눈물이 그렇게 맺힌다.

**은교**

근데, 넌 왜 이 유리 좋아하면서 양 미숙이랑 잤지?

**서 선생**

유리 선생하고는 끝난 지 오래됐어, 여보.  
당신이 이혼 얘기 꺼냈을 때, 바로 연락 끊었었는데...  
유리 선생님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

**유리**

(서 선생을 찌러보며 발끈)

그게 아니죠!

선생님은 그 후에 더 깊은 관계를 원하셨잖아요!

(미숙과 종희, 동시에 헉!!)

**은교**

더 깊은 관계라니?

**유리**

(당황하며)

더 깊은 관계가... 그런 깊은 게 아니구요,  
선생님이 밤새도록 깊~은 대화를 요구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데요, 잠도 못 자고!

**미숙, 종희**

웃기시네!!

**종희**

너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잤어, 우.리.가!!  
좀만 늦게 들어와도 난리치고!  
해 댔는데도 한 시간만 더 하자 그러구!  
쉬는 시간도 5분밖에 안 주고!

**미숙**

우리가 어떻게 그거 하면서, 에호박을 택배로 보내냐?!

**종희**

이 변태야!

유리, 사색이 된다. 벌떡 일어서며,

**유리**

어떻게 그걸...

**종희, 미숙**  
(유리를 노려보며)  
커진다! 커진다! 커진다!

유리, 휘청! 은교, 종희의 사운드 버튼을 꺾다 꺾다 반복한다. 당황하며,

**은교**  
뭐야, 이래도 들리는 거 있어?

**종희, 미숙, 유리**  
그런 기능은 원래 없어요!

#### 114. 원성여중 · 고 운동장 - 낮

축제 분위기 무르익기 시작한다.

야외무대 위, “1+1=무한대야” 참가 팀 중 하나인 듯, 요란한 복장의 여중생들이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다.

#### 115. 원성여중 어학 실 - 낮

일동, 쓸모없는 헤드폰, 몽땅 벗어버린 상태.

유리, 책상에 엎드려 미동도 없다. 은교, 미숙을 차갑게 바라본다. 시뻘건 미숙, 은교를 쏘아본다. 팽팽한 기 싸움

**은교**  
(차분하게)  
미성년자인 내 딸에게 밤마다 그런 몰상식한 짓을 시켰고,  
‘이’양에게는 밤마다 그런 교통을 안겨주고,  
‘고두심’이라는 가명으로, 우리 학원에 다니면서 나를 염탐해왔고,

**미숙**  
(당당하게)  
그건 진짜로 우리 엄마 이름 맞거든요?

**은교**  
게다가, ‘양’ 양은 술 취한 서 종철과는 동침을 했죠,

미숙, 무슨 순교자 마냥, 두 눈 부릅뜬 채 미동도 없다. 유리, 조심스럽게 손을 들더니,

**유리**  
저랑 같이 사는 동안, 수도세, 전기세도 한 번을 안 냈어요!

**은교**  
(두 눈을 감고)

사람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양' 양도 사람인데!

**미숙**

(고개 숙이며)  
고맙습니다.

**은교**

(두 눈 번쩍 뜨고 미숙을 바라본다)  
자, 이제 얘기해 봐요.

**미숙**

(멍청한)  
필요?

**은교**

왜 그랬지, '양' 양?

미숙, 움찔. 은교의 기에 눌리지 않기 위해, 언성의 톤을 유지하며,

**미숙**

일단,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사모님.  
저는 매일, 여기서 종회랑 밥새고, 해 뜨면 곧장 영어 학원 갔다가,  
낮엔 애들 가르치고, 퇴근하면 바로 벨리 가고,  
밤 되면 다시 종회 만나느라...  
(유리를 착. 때려보며)  
재네 전기를 써 본적도 없거든요?  
수도세 문제도 그래요.  
저는 사실, 따로 씻을 시간이 없어서, 머리도 학교에서 감았던 말이에요!

미숙, 애써 당당한척 어깨 짝. 펴 보지만, 이미 주눅이 든. 은교, 문득 고개 가우뚱.

**은교**

사람이 그런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가능한가?  
기본적인 수면과 식사가 보장 안 되잖아.

**미숙**

(씩씩하게)  
잠은, 점심시간에 양호실에서 잠깐 자구요,  
아침밥은 어차피 영어학원 때문에 못 먹구,  
점심엔 눈 붙여야 되니까, 쉬는 시간에 매점에서 먹구,  
퇴근하고, 벨리 시간 맞춰 가려면, 저녁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밤에 종희가 이것저것 싸오는 거 같이 먹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삶이란 말인가?! 푸석푸석한 피부와 볼륨 잃은 몸매.  
이미 총기 잃은 눈으로 사력을 다해 은교를 쏘아 본다. 은교, 차갑게 쏘아 붙인다.

### 은교

‘양’ 양이 사람이라면,  
종희한테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종희 아빠랑 그런 짓을 하지?

미숙 심장, 철렁! 할 말이 없다. 종희, 서늘 퍼런 눈으로 미숙을 찌려보고 있다. 미숙, 머릿속이 하얘진다.

### 미숙

제가 미안한 줄 알면서, 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미안하지 않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전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낌이 온 건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 느낌이라는 게... 워낙 주관적이니까 신뢰가 안 생길 수 있거든요?  
(‘양’ 양의 논리가 방향을 잃고 있다. 은교, 묘한 미소 살짝)  
...근데, 왜 유리 선생 얘기는 다 들어주세요? 재는 맨날 ‘느낌적인 느낌’이라면서 말하는데?!  
뭐, 유리 선생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별론가?!!!  
(절규한다)  
그래! 나도 알아, 내가 별루라는 거!!!

아차,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한 거지? 미숙, 죽고만 싶다. 어학 실, 침묵만 흐른다.  
각 교실의 스피커를 통해 공지방송이 흘러나온다.

### 방송 반 아나운서 목소리

오늘 오후 여섯시부터 진행될 1+1=무한대야 참가팀 명단입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참가팀이 호명되기 시작한다. 서 선생, 자리에서 일어난다.

### 서 선생

여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종희, 아빠를 따라 벌떡. 일어선다. 미숙, 어쩔 줄 몰라 하며 종희의 손을 붙잡는다.

### 미숙

(애절하게)

이렇게 그냥 가면 어떡해, 종희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서 선생, 미숙에게서 종희 손을 매몰차게 뺐는다. 사색이 된 미숙, 서 선생을 향해 버럭!

### 미숙

어디 가요?! 내 말 안 끝났단 말예요!

**방송 반 아나운서 목소리**

다음은 유일하게 선생님과 학생 팀인데요,  
2학년 매화반 서 종희와 양 미숙 선생님이십니다.

미숙과 종희, 헉!!!! 종희, 미숙을 노려보며,

**종희**

니가 신청했어?

**미숙**

... 니가 한 거 아냐?

**방송 반 아나운서 목소리**

팀 명은... 어... 어...

(잠시 주저한다)

전파와 전파 친구...

종희, 울컥- 어학 실 스피커 선을 확 잡아끌으며,

**종희**

내가 미쳤어? 너 같은 전파랑 친구하게?!

**미숙**

... 내가 전파라고?...

**116. 원성여중 · 고 운동장 야외 무대 뒤 - 낮**

공지 방송을 듣던 “1+1=무한대야” 참가팀 학생들, 웬일이나? 낄낄댄다.

**학생 1**

아, 내가 분명히 전파와 전파 친구라고 써서 냈는데...

**117. 원성 여중 어학 실 - 낮**

미숙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종희, 서 선생의 손을 잡아끌며,

**종희**

가자, 아빠!

미숙, 그런 종희를 본다. 문득, 평생을 이렇게 혼자 남겨질 것만 같아 무서워진다. 서러움과 공포에 혼자 울컥-

**미숙**

저 사람이 날 건드렸어요, 3년 전에!

미숙, 서 선생을 손가락질 하며, 좌중을 둘러본다. 서 선생, 입을 짝 벌린다.  
일대, 움찔. 미숙, 말을 뱉고 보니 자기도 당황스럽다.

**은교**

...3년 전에?

**종희**

(사색이 된다)

선생님을 건드렸... 다구요?

**미숙**

(당황한다)

... 어?

**서 선생**

(미숙을 노려보며)

너 미쳤어?! 내가 뭘 어쨌는데!

**미숙**

(울컥. 원망 가득한 눈빛)

...나한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그 말이 나와요?

미숙의 모습,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대! 은교, 여태 보지 못한 날카로운,

**은교**

말 돌리지 말고 얘기해, 당장!

**미숙**

(당황한 나머지 버럭)

난 말.못.해!

모두들, 동시에 미숙을 노려본다. 당장 대답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

**종희**

(진득 겁먹은)

말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종희, 정말 죽을 기세다. 겁먹은 미숙, 어쩔 줄 몰라 하며, 종희 팔을 덩석 잡아 끌어낸다.

## 118. 원성여중 어학 실 복도 끝 - 낮

철썩! 소리 함께 약 하는 종희의 비명 소리.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이는 운동장 풍경,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다.

시뻘건 미숙, 이번엔 자신의 왼 뺨을 때리려는 듯, 다시 손을 치켜드는데, 종희, 미숙의 손을 덥석. 잡는다.

**종희**

치사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미숙**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하지 마.

**종희**

뭘 잘못했는데?

미숙, 고개 숙인다. 후두둑. 닭똥 같은 눈물, 떨어진다.

**미숙**

...전부 다!

종희, 알락. 눈물이 쏟아진다. 두 눈 질끈 감더니, 종희의 두 눈도 가려버리는 미숙, 소리 지른다.

**미숙**

울지 마, 종희야! 울지 마!

내가 다 말할 게!

니네 아빠가 날 건드린 건 아니야!

**종희**

건드린 게 아니면 도대체 뭘데!

**미숙**

(떨리는 목소리)

그 때는... 둘 다, 정말 진심이었어...

## 119. 티코 안 - 늦은 밤 : 미숙의 3년 전 과거

소형차 뒷자리에 성인 4명이 구겨 탔다. 미숙, 창가에 앉아있고, 바로 옆자리엔 만취한 서 선생.

자리가 좁다보니... 서 선생, 본의 아니게 미숙을 한 팔로 품에 안은 자세.

양 볼이 발그레해진 미숙, 바짝 긴장한 상태. 쿵닥쿵닥.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서 선생, 어떤 일인지 미숙의 귀밑머리를 옆으로 쓸어 넘긴다. 미숙, 철렁!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저 혼자 심각하게 고민하던 미숙, 갑자기 두 눈 질끈 감더니, 서 선생의 무릎을 통. 건드린다.  
나름대로 의미를 둔 화답인 양! 서 선생, 이미 굶아떨어진 상태...

### 미숙

(개미만한 목소리)  
걱정 마세요, 선생님...

시뻘건 얼굴의 미숙, 수줍게 웃는다.

## 120. 원성여중 어학 실 복도 끝 - 낮

종희, 망연자실하다. 미숙, 혹시 자기가 덜 솔직했나 싶은 마음에, 두 눈 질끈 감고 다가선다.  
종희의 귀밑머리를 쓸어 넘겨 보이며,

### 미숙

내 여기를 이렇게... 만지셨고,  
(종희의 무릎을 의미심장하게 잡았다 놓아 보이며)  
난... 여기를 이렇게 만졌어.  
그랬더니, 그냥 자는 척하시더라...

고개 숙인 미숙, 앙상하게 말라 초라하기 그지없다.

### 종희

그게... 다냐?

### 미숙

어.

쿠구쿵! 갑자기, 복도 유리창을 뒤흔들고 지나가는 거센 바람!  
종희, 털썩 주저앉으며,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한다. 미숙, 우는 종희를 보니 자기도 울음이 터진다.

### 미숙

(질질 울면서 종희 눈물을 계속 닦아낸다)  
울지 마, 종희야... 울지 마...  
내가 다시 들어가서... 엉엉... 솔직하게 다 말 할게...  
니네 아빠가 날 건드린 게 아니라, 그 땐 둘 다 진심이었고... 엉엉...  
실은, 나도 좋아했었다고... 엉엉  
미안해...

### 종희

(울다말고 흠칫. 정색한다)

뭘 소리아!  
지금 저 상황에서, 그걸 말 하겠다구?  
(자기 귀밑머리 옆으로 탁탁 치며, 버럭)  
뭐, 가서 이렇게, 뭐! 우리 엄마한테도 보여주게?

**미숙**  
(홀짝이며)  
그게 사실이잖아...

이 여자, 대책이 안 선다. 시벨건 종희, 미숙의 두 팔을 덥석 잡으며,

**종희**  
양 미숙!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어학 실 문틈으로 살짝 보이는 은교. 이 모든 광경을 듣고 있다

## 121. 원성여중 어학 실 - 낮

**미숙**  
그러니까... 재계제작년 회식 때...

모두들, 미숙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시벨건 미숙, 주저주저 말을 잊지 못하는데...  
종희, 아무도 모르게 눈치를 준다. 빨리 얘기해!!  
은교, 그런 종희를 예리하게 발견, 미숙과 종희를 주시하기 시작한다.

**미숙**  
서 선생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때...  
(눈 질끈 감으며)  
선생님이, 제 귀...를 핥으시면서...

**서 선생**  
(시퍼렇게 질린 얼굴)  
...내가?!!!

## 122. 티코 안 - 늦은 밤 : 모두의 상상

서 선생, 미숙을 품에 안은 자세. 시벨게진 미숙의 귓불을 넉넉! 혀로 핥는다.

**미숙 목소리**  
귓구멍 안으로 선생님의 혀를.. 넣다 뺐다 하셨구요...  
제 귓 불을 쪽쪽 따시면서..

서 선생, 미숙의 귀를 음란하게 희롱하며, 물고 빨고 한다. 차 안의 미숙, 눈을 질끈 감는다.

### 123. 원성여중 어학 실 - 낮

낮 나간 서 선생.

은교, 유리, 동시에 귀를 마구 긁기 시작한다. 종희도 엉겁결에 자기 귀를 마구 긁는다.

**미숙**

(비장하게)

너무나 로맨틱하게... 속삭이셨어요!

**유리**

(얼이 빠져 있다)

로맨틱... 하세요?

**미숙**

(서 선생을 외면하며, 허공에 대고)

너... 참... 맛있다!

**종희**

(기다렸다는 듯, 과장된 동작과 함께 비명)

아빠, 미워!!

**서 선생**

(질규)

난 그런 적 없어, 여보!

**은교**

잠깐! 생각 좀 하자.

은교, 차분히 미숙을 바라본다. 미숙, 시뻘건 기운이 온 몸으로 번진다. 좌불안석이다.

**은교**

(무섭도록 냉정하게)

서 종철! 넌 직장 동료들 성추행 한 거야!

고소당해야 정신 차릴래?

예상치 못한 상황! 미숙, 엉겁결에 소리 버럭.

**미숙**

성추행은 아니다!

유리, 저건 또 무슨 항변이나? 어처구니없다. 은교, 미숙을 노려보며, 엄하게 꾸짖는다.

**은교**

그게 성 추행이 아니라고?  
양 미숙씨, 애정 표현과 성 추행을 구분 못하나?

**미숙**

(다급하게 울부짖는다)  
내가 애정 표현이라고 느꼈으면, 애정 표현인 거다!

서 선생,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 유리, 미숙을 불쌍하게 바라본다.

**은교**

(심각한 척)  
...‘양’양이 심각하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종철이를.

종희와 미숙, 헉!!!

## 124. 원성여중 · 고 운동장 - 오후

신나는 밴드 공연이 시작된다. 무대 주변을 새카맣게 메운 아이들, 환호성을 지른다.  
분위기 한껏 무르익는데, 갑자기 불어 닥치는 돌풍! 와르르 무너지는 무대 뒷벽. 아이들, 비명 지른다.

## 125. 원성여중 어학 실 - 오후

묘하게 숙연한 분위기. 고개 숙인 미숙, 정 중앙에 앉아 있다.  
저 구석 유리, 누군가와 열심히 문자를 주고받느라 정신없다. 은교, 짐짓 침통한 표정으로 입 연다.

**은교**

일단 양미숙씨는 서 종철을 깨끗이 잊도록 해요  
(미숙, 헉!)  
나도 오늘부로 종철이랑 이혼을 할 테니까.  
(종희, 헉!)  
종철이, 너는 콩밥 좀 먹어야겠다.  
(서 선생, 헉!!)

**미숙, 종희**

(사색이 된다)  
왜요?!!

**은교**

(서 선생을 노려보며)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양 미숙씨, 내가 변호사 비용 대줄테니까, 고소하세요!  
성추행은 친고죄라서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해요.

**미숙**                      **종희**  
(질박하게)                  (질박하게)  
사모님!                      엄마!

**미숙, 종희**  
사실은 다 뺑이예요!

**은교**  
(무섭게)  
그게 만약 뺑이라면,  
양미숙씨는 아끼는 제자의 집안을 망칠 작정이었던 애긴데, 교사가...?  
그럼 종희 너도, 니 아빠를 감옥에 보낼 작정이었어?  
그걸 누가 믿겠니, 아무도 못 믿지!  
종철이가 불쌍해서 감싸주고 싶은가 본데, 괜한 동정심 갖지 마라.

팩당! 서 선생, 의자를 들었다 내친다. 외작 부서진 의자. 일대, 흠칫. 분노에 찬 서 선생, 목청 높여 절규한다.

**서 선생**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인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평생 똑같나? 다 노력하는 거지!  
노력하다가 힘들면 좀 쉬었다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내가 쉬다가 실수 좀 했다!  
당신은 45년 평생 한 번도 실수 한 적 없어?

**유리**  
(눈물 그림)  
... 그럼, 선생님 저에 대한 것도 실수 있었어요?

**서 선생**  
이 선생님, 제발 철 좀 드세요!  
'실수'라는 말은 '조심 하지 않아서 잘못 했다'는 뜻이예요.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이 선생님한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게 그렇게 슬픈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평생 조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다들 조심하지 않는 순간에 마음 흔들리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나빠요?  
(눈물 그림. 멧힌다. 은교를 향해)  
나는 15년 전, 병원에서 당신 처음 만났을 때도 최고로 큰 실수했어.

그래서, 우리 종희도 태어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여보, 이제 그만 하자, 제발!

서 선생, 은교 곁에 주저 앉아버린다. 이를 앙 물고 섰던 종희, 갑작스런 실소 터뜨린다.

**종희**

거..짓..말...

나도 알 건 다 알아, 내가 친 딸이 아니라는 거!

앵? 이건 또 무슨 계획에 없던 발언이란 말인가? 미숙, 당황한다. 종희, 진심인 것 같다.

**은교, 서 선생**

너, 우리 딸 맞아!

**종희**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엄마가 온 몸에 기브스하고 아빠랑 그걸 할 수 있어?!  
내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 그건 불가능이더라! 불가능!

**은교, 서 선생**

(당황한 나머지 소리 버럭)

가능해!

어느새, 은교와 서 선생, 두 손 맞잡고 서 있다.

**서 선생**

사랑하면 다 가능해, 종희야.

은교, 흠칫. 서 선생을 바라본다. 서 선생, 고개 숙인다.

**은교**

(종희에게)

엄마가 집에 가서 가르쳐 줄게...

종희, 그런 엄마 아빠를 본다. 보아하니 정말인 것 같다. 미숙, 그런 종희를 본다. 어쩐지 외로움이 밀려온다.

**서 선생**

여보, 그만 용서해줘.

**종희**

(은교에게 외락- 안기며)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리, 고개 꼭 숙인다. 꾸뻑꾸뻑 은교에게 다가가,

### 유리

사모님, 그만 용서해주세요..

미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은교 주위에 모여 용서와 사랑을 구하기 시작한다.

엉겨 붙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미숙, 핸드폰을 꼭 쥐어 보는데, 갑자기 터지는 울음, 알쏭구멍 뚫린 저수지 마냥 통제가 안 된다.

29년간 참았던 서러움과 외로움을 다 토해내며 서럽게 울부짖는 미숙, 갑자기 엉겨 붙은 그들을 향해 몸을 던진다. 마치, 나도 꺼달라는 듯!

### 미숙

나두, 나두, 나두요!

(은교에게 매달려 처절하게)

사모님, 나두 용서해주세요!!!

일동, 어처구니없는데, 은교, 오호라~ 눈빛이 살아난다.

### 은교

뭘 용서해 달라는 거지, '양'양?

'양' 양은 우리 종철이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 미숙

(울음 푹 그치며)

네!!!

### 은교

앞으론 따라다니지도 않을 거고?

미숙, 대답 못한다. 은교, 휘청~!

종희, 울음 푹 그치며, 당황한다. 서 선생, 생존본능 상실 단계에 접어든다.

### 은교

(애써 침착하게)

그럼... 양미숙씨는 원하는 게 뭐지?

### 미숙

(눈물을 닦아내며)

없어요...

은교, 다시 휘청~! 이 여자, 종잡을 수 없다! 애써 짜증을 억누르는 은교

**은교**

그럼 뭘 어찌자는 거야?

**미숙**

(쭈뼛쭈뼛)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은교**

아니, 유부남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으면서,  
뭘 어찌고 싶은지 생각도 안 해 봤다구?

**미숙**

(바보 같은 표정)

그 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요....

은교, 안광이 번뜩인다. 거칠게 몰아붙이며,

**은교**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말고, 여기서 정리합시다, 양 미숙씨.  
1번! 이대로 가정 파괴범이 된다, 2번! 깨끗이 털고 새 출발한다,  
결정하세요!  
10분이면 생각할 시간 충분하지?  
(벽시계를 가리키며)  
시.작!

일동 헉! 미숙, 저도 모르게 두 눈 질끈 감아 버린다.  
째깍째깍... 초침소리 점점 커진다.

속 타는 서 선생, 안절부절. 1분이 10년 같다.  
유리, 정말 심심해 죽겠다. 에잇 책상에 엎드려버린다. 종희, 원망 가득한 눈으로 은교를 바라본다.

미숙, 최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명상의 시간>을 지도하던 정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 **미숙의 환청 - 정녀 (貞女) 교무 목소리**

눈을 살며시 뜬 상태에서 코끝을 바라다봅니다.  
입은 다물고 혀끝을 입천장에 살며시 대고 위, 아래 치아를 가볍게 붙입니다.  
맑은 물이 입 안 가득 고이면, 가끔 모아서 삼켜냅니다.

미숙, 허리를 곧추 세우고 앉아 명상의 지도를 따른다. 아스라이 들려오는 10년 전 소리들.

### **사전사 목소리**

하나, 둘,

## 서 선생 목소리

미숙이!

두 눈을 감은 미숙, 움찔. 시벨건 만면에 묘한 미소 떠오른다.

### 126. 제주도 - 오후 : 미숙의 10년 전 과거

고 3 수학여행,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대열 맞춰 선 아이들.

가장 뒷줄, 어디에도 끼어들 자리가 없어 쭈뼛쭈뼛 포기해 돌아서는 19살 미숙이 보인다.

## 서 선생 목소리

양미숙이 어딴지?

움찔. 놀란 미숙, 대열 맨 앞줄에 선, 젊은 서 선생의 뒷모습을 본다. 두리번대는 서 선생.

## 미숙

(개미만한 목소리)

저, 여기 있어요.

아이들, 관심 없다. 누구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 미숙, 우물쭈물 하는데,

## 서 선생 목소리

미숙아!

## 사진사

셋!

에라. 모르겠다! 고개를 쪽 빼 울리며 풀쩍. 뛰어 오르는 미숙. 찰칵 사진 찍힌다.

사진 속, 서 선생과 나란히 자리 잡은 19살 미숙의 얼굴, 너무 애쓰느라 오만상 일그러져 있다.

미숙이의 방, 화장대에 놓여있던 바로 그 사진이다.

## 은교 목소리

양 미숙씨, 결정했나?

### 127. 원성 여중 어학 실 - 저녁

정확히 10분 지났다.

서 선생, 그새 아원 물골로 자리에 앉는다. 유리, 그새 잠들었다. 종희, 긴장한 모습.

미숙, 서 선생을 물끄러미 본다. 은교, 어라? 살짝 불안해지는데...

**미숙**

저기... 그 전에, 제가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 선생, 음찐. '저 입에서 또 무슨 말이?' 싶는데, 미숙, 핸드폰을 꼬옥 쥐어본다. 깊은 심호흡 내쉬더니,

**미숙**

혹시, 저한테... 전화하고 싶으신 적 있으셨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요.

이 중요한 상황에 한다는 질문이란! 일동, 입이 짹- 벌어진단다. 은교, 책재의 미소를 애써 감추며,

**은교**

정말 그게 전부인가, 양양?

미숙, 질실하게 고개 끄덕인다. 피골이 상접한 물꿀  
고작 그것 하나 묻지 못해 이 지경까지 흘러왔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서 선생**

...단 한 번도 없었다.

침묵, 흐른다. 시뻘건 미숙, 서 선생을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미숙**

사실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전화하고 싶었어요... 그냥!

미숙, 그저 한 순간이라도 사랑받고 싶고, 너무 사랑해보고 싶은 평범한 여자의 얼굴이다.

**미숙**

(은교를 향해)

저, 사모님, 2번! '새 출발'로 하겠습니다!

애써 웃어 보인다. 물기 어린 미숙의 눈동자, 반짝 빛난다.  
은교, 긴장 풀어지며 안도의 한숨 쉰다.

## **128. 원성여중 · 고 소각장 - 저녁**

은교, 찌그러 앉아 울고 있다. 이런 모습 보니, 그녀 역시 평범한 여자다.  
당황한 서 선생, 안절부절 은교를 달래기 시작한다. 은교, 서 선생을 자주 밀어낸다.

## **129. 원성여중 · 고 운동장 - 저녁**

텅 빈 운동장. 무너져 있는 야외무대. 미숙과 종희, 덩그러니 서 있다. 종희, 두 눈 부릅뜨고 주위를 둘러본다.

**종희**

애네들은 왜 맨날 자꾸 어딜 가?!

**미숙**

(잔뜩 겁먹은)

... 그냥 하지 말자, 종희야..

거세게 휘몰아치는 돌풍.

### 130. 몽티쥬 - 저녁 : 달리는 미숙과 종희

- 원성여중 중앙 현관

종희, 미숙의 손을 잡아끌고, 미친 듯 달려 들어온다. 이때, 저 멀리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린다.

종희,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마냥 안광 번뜩이며,

**종희**

다들 우리가 쪽팔려서 도망친 줄 알 거 아냐!

- 학교 복도

종희, 미숙의 손을 꼭 붙들고,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방향을 향해 뛰기 시작한다. 어금니 악. 물고, 미숙, 종희 손에 잡혀, 질질 끌려가며 울먹인다.

**미숙**

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들은 우리에게 관심 없어, 종희야...

- 구름다리

아찔한 높이의 구름다리 위. 두 사람, 두 손 꼭 잡고 죽어라 뛴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환호성.

**종희**

난 관심 있어!

- 계단

두 손 꼭 잡은 채,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는 두 사람, 숨이 턱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아이들의 환호성, 점점 가까워진다.

**종희**

여태까지 이동 수업은 단 한 번도 못 들어왔단 말야!

종희, 미친 듯이 뛴다. 미숙, 표정 굳는다.

- 대강당 문 앞

귀가 멍멍할 정도로 요란한 댄스 음악, 강당이 터져 나갈 듯. 종희, 강당 문을 벌컥 열려는데,

미숙, 다급하게 붙잡는다. 종희, 눈시울 붉어지며,

### 종희

우리도 딴 애들처럼, 열심히 연습했잖아!

순식간에 시뻘게진 미숙, 종희를 찬찬히 바라본다. 이윽고 비장하게

### 미숙

알았어! 하자!

근데, 이 꼬라지로는 안돼!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

미숙, 자기 가방을 황급히 열어 보인다. 가방 속 내용물을 확인하는 두 사람, 고개 들어 서로를 보며 씨익-

### 학생 6 목소리

재네 뭐 하는 거냐, 지금?

## 131. 원성여중·고 대강당 - 저녁

‘아니 정말 고맙.. 어찌구 저찌구’ 하는 <고도를 기다리며> 대사, 아스라이 들린다.

웅성대는 아이들 뒤통수 너머 보이는 무대. 개미만큼 작은 미숙과 종희, 번갈아가며 솟아올랐다, 가라앉았다, 한다.

### 학생 7

야, 재네... 아까 교무실에서 무슨 폭행 사건 있었다고 안 했냐?

무대 위, 시뻘건 미숙과 종희, 등을 맞대고 “콩쥐팥쥐 동작”을 하며, 서로 ‘고맙다’ 고래고래 대사를 외치고 있다.

미숙은 벨리 댄스 상의에 정장 치마, 종희는 교복 상의 아래에 벨리 댄스 치마를 둘렀다.

화려한 터키 식 금팔찌 한 쌍을 사이좋게 나눠 찬 두 사람, 어처구니없이 진지하다.

무대 앞, 줄지어 앉아있는 교사들, 민망해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다.

우- 하는 아이들의 야유 소리 점점 커진다.

무대 위, 미숙과 종희, 아이들의 야유에 당황한다. 미숙, 비장하게,

### 미숙

안 되겠다, 전략 수정하자!

미숙, 황급히 무대 뒤로 뛰어 간다. 잠시 후, 터키 음악이 터져 나온다. 아이들, 이 뭔가? 야유 뚝 멈춘다.

혼자 남은 종희, 당황스러운데... 저 무대 뒤에서 아시시- 등장하는 미숙, 벨리 댄스를 추고 있다.

무대 뒤, 방송실.

방송반 아이들, 황당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방송실 모니터, 서 선생 ‘월드 뮤직’ 방송 사이트가 띄워져 있고, 터키 음악이 흘러나온다.



무대 위, 미숙, 아이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열심히 벨리를 춘다.  
종희, 그런 미숙을 뺨- 하게 바라보다가, 같이 벨리를 추기 시작한다. 가관이다.  
아이들, 기가 차서 그들을 구경한다. 두 사람, 정말 열심히 벨리를 춘다.

### **미숙 목소리**

(공허한)

아... 난 이제 뭐하지?

### **종희 목소리**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 **132. 강원도 양양 시 피부과 진료실 - 오전**

'피부과 전문의 박찬욱' 과 간호사, 입을 찹 - 벌리고 섰다. 미숙, 수줍은 미소 짓는다. 종희, 의사를 훑어보며, 대뜸.

### **종희**

선생님, 결혼 하셨어요?

미숙, 저 혼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순식간에 시뻘게진다. 몹시 부끄러워하며,

### **미숙**

(종희의 등짝을 푹푹 때린다)

어우 야~~!!!!

의사, 사색이 된다. 종희, 미숙에게 맞으면서, 대차게 버럭!

### **종희**

아, 결혼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왜 말을 안 해요?

당황한 의사, 엉겁결에 고개 가로짓는다. 미숙과 종희, 화색이 돈다. 미숙, 심호흡하더니, 의사를 향해,

### **미숙**

(저음의 카리스마)

난 니가 참 맘에 든다!

씩씩한 미숙. 종희, 미소 짓는다. 의사, 얼어붙는다.

경쾌한 엔딩 음악, 시작된다.

온 몸을 기쁘스한 여자와 남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체위 일러스트가 전개되기 시작한다.

- THE END